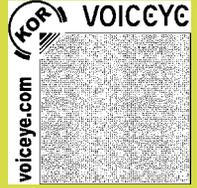


ISSN 2383-9872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6년 봄



노들방노란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지립생활센터

장애인지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지립생활센터「판」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그림 이은애

2016년도에도 우리는 역시 투쟁!!
복지가 제대로 될 때까지!!!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4 알 수 있는 건, 모른다는 사실 하나!
- 07 **[교단일기]** 나의 몸짓을 찾아서
- 10 **[교단일기]** 이리쿵저리쿵 방송국의 이리저리 이야기

- 12 저 일등 먹었어요!
- 14 앞이 캄캄해요!
- 20 **[노들아 안녕]** 노들에 새로 입성한 독수리 오형제
- 23 **[노들아 안녕]** 회자정리 거자필반 노들!
- 25 고군분투 33살 화이팅

- 27 **[고병권의 비마이너]** 공상 말고 사랑을 하자
- 29 **[형님 한 말씀]** 쌍용자동차 승리 보고대회 & 용산참사 7주기
- 31 기쁘다 엘리베이터 오셨네
- 34 기쁘다 탈시설 오셨네~ 메리 탈시설!
- 38 광화문 농성장 야간 사수 도전기
- 41 정립전자 비리 사태를 보며
- 44 장애인독립진료소 이야기

- 47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드디어 나에게도 나의 집이!
- 50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삶의 동반자
- 52 삼성의 폭력과 착각
- 58 당신들의 평화
- 60 노들야학에서 만난 세월호 사람들
- 67 **[대학로야 같이 놀자]**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인가요?
- 69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공무원 인권교육을 다녀와서

- 71 나는야 여러분의 친구, 야마가타 트릭스터~
- 75 우리는 누구일까요?
- 77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에 함께해요!
- 81 ‘태수야2’ 음반을 소개합니다
- 84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노들야학 댄스반 교사 원혜선
- 87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7호 2016-03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도현 **편집위원** 강미진 김명학 김유미 김진수 박세영 조아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안녕하세요, 김유미 활동가에 이어 『노들바람』 편집인을 맡게 된 노들야학 상근교사 김도현입니다. 노들야학은 제가 2000년에 첫 사회활동을 시작한 곳이고, 2003년 봄 휴직 후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간 『함께웃는날』 등에서 활동을 하다 만 11년만인 2014년 가을에 복직을 했는데요, 이렇게 『노들바람』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게 되니 왠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노들바람』은 재미있는 책인데, 사실 제가 참 재미 없는 사람이라 이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하지만 노들이라는 삶의 공간 자체가 보그락 보그락 시끌벅적 우하하하 재미난 곳이니, 저는 그저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이 지면에 잘 옮겨다 붙이는 역할을 ‘조금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노들에서는 이번 학기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야학에서는 총학생회장단이 새로 선출되었고, 각 반 담임도 바뀌었고, 새로 수업을 맡은 신입 교사도 5명이나 됩니다. 노들센터는 권익옹호 활동가 그룹을 새롭게 조직하는 등 활동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고요, 센터 판은 길음역 근처에 새로운 공간을 계약해서 4월 초에 이사를 하네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는, 노들의 근거지 중 하나인 동승동 유리빌딩의 4층에도 교육 공간이 마련되면서 대대적인 공사와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새롭게 확장된 노들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호에 담지 못했는데요, 정리와 단장을 마치고 나면 다음 호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을 했지요. 이 분이 연초에 거대 법인 단체들이 주최한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장애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만들겠다고 밝힌 게 소위 ‘장애인정책 미래위원회’입니다. 최근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에 어쩌다보니 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소통까지는 뭐 좋은데 ‘화합’이라는 말은 왠지 많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꿈꾸던 고(故) 송국현 동지의 억울한 죽음을 방조하고도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던, 그 책임자를 뻔뻔스럽게도 다시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보냈던 저들과 우리는 과연 화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요즘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불화』(길, 2015)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가 책의 제목인 ‘불화’(mécontentement)라는 언어 상황을 규정하는 방식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불화는 하양다고 말하는 사람과 검다고 말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하양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양다고 말하는 사람 사이의 (...) 갈등이다.”(17쪽)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저들도 ‘복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립생활’을 얘기하고 저들도 ‘자립생활’을 얘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와 자립생활은 저들이 얘기하는 복지나 자립생활과 말만 같지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탈시설’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불화가 제거된 화합이라는 게 랑시에르의 용어를 빌자면 ‘정치’가 실종되고 ‘치안’이 확립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마도 저들과 계속해서 불화할 수밖에 없겠지요. 코앞으로 다가온 소위 정치의 계절, 저희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활동에도 420투쟁에도 열심히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불화하겠습니다.

이번 『노들바람』 107호는 노들장애인야학 후원마당 ‘밥상이 나르샤’ 티켓과 함께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급식을 시행하면서 누적된 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리빌딩 4층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 좋기는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진 빛도 맘을 좀 무겁게 하네요. 전해드린 티켓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지인 분들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봄날 5월 14일에 노들을 꼭 찾아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모른다는 사실 하나!

김진수

노들야학 상근 교사이고, 2016년 교사대표이기도 해요.
요새 취미는 점심시간마다 낙산에 올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보는 일은 언제나 좋네요.

노들장애인야학 신입
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정애경, 부총학생회장
김탄진, 총무 이호연)을
만났다.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웃픈(웃기고
슬픈). 뻘한 인터뷰라고
아는 체하지 마시길...
안다고 믿었던 하지만
몰랐던,
서로의 이야기.

- **진수** : 『노들바람』 아시죠? 학생회장과 총무가 바뀌었으니까, 신입 학생회장단과 만난다는 기획으로 기사를 실으려고 해요. 사진도 찍고요. 제가 질문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요. 제일 처음에 그럼 소감, 소감 말씀해주세요.
- ▲ **호연** : 총무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돈 만 아끼면 되지! 총무는!(다 같이 웃음)
- **진수** : 돈만 아끼면 되지~ 동의하세요, 애경 누나, 탄진이 형? 다른 말 없어요? 누나 야학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뭔가를 맡아서 한 게 처음이잖아요.
- ▲ **호연** : 그냥 무덤덤... 무덤덤
- 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전에 직장에서 있을 때, 경리직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했어~
- **진수** : 잘하시겠네요. 완벽한 총무네.
- **진수** : 애경 누나는 어때요?
- ▲ **애경** : 부회장 반장 다 해봤는데, 처음 회장을 맡아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튼 맡은 일은 잘 할 자신 있어!
- ▲ **호연** : 그러면 내년에 총무 하면 되겠네. 회장 부회장 반장 다 해봤으니까, 총무 하면 되겠어. 다음에.
- **진수** : 탄진이 형이 총무 하는 건 어때요?
- ▲ **호연** : 이 사람은 총무 하면 안 돼~ 총무는 여자가 해야 해.
- **진수** : 왜요?
- ▲ **호연** : 안 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남자가 총무를 하면 돈을 헤프게 써!

▲ **애경** : 아니. 탄진이 돈 헤프게 안 써!

▲ **호연** : 남편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마~

▲ **애경** : 아니 아니.

● **진수** : 일단 탄진이 형 이야기를 들어봐요.

▲ **탄진** : 나 헤프게 안 써. 돈 아껴. 알뜰해.

▲ **애경** : 탄진이는 나보다 더 꼼꼼해.

● **진수** : 알았어요. 탄진이 형 총무 얘기는 그만 하구요. 소감 말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애경 누나 더 할 말 없으세요?

▲ **애경** : 음... 내가 회장직을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뒤에서 이야기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해 줬으면 좋겠어.

▲ **탄진** : 나도.

● **진수** : 아~ 불만 사항 같은 것들을 뒤에서 이야기 하지 말고 앞에서 해달라는 거죠?

▲ **애경** : 응 그렇지! 그래야 고쳐가지! 뒤에서 하지 말고.

● **진수** : 탄진이 형은요?

▲ **탄진** : 공약을 꼭 지킬 거야.

● **진수** : 공약이 뭐였죠?

▲ **애경** : 학교 결석 한 번도 안 하

고, 집회 할 때도 빠지지 말고, 둘 다 개근 했을 때 상품권 2만원을 주는 것.

▲ **호연** : 그거 어려울 텐데...

● **진수** : 어려워야지 선물 받을 맛이 나지요.

▲ **애경** : 학생들 안 빠지게 하려고.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빠지지 말라고.

▲ **호연** : 보보해줘~ 올 출석 하면.

▲ **애경** : 아이고 언니~야 언니야!

▲ **호연** : 농담이야!

● **진수** : 호연 누나는 총무로서 뭐 계획 같은 것 없어요.

▲ **호연** : 잘하면 되지. 알뜰하게.

● **진수** : 그런 것 말고 뭐 생각해 본 건 없으세요?

▲ **호연** : 총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 **진수** : 새로운 총무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 **호연** : 글썄요~ 자주 우리 만남시다.

- 모두 : 좋아! 좋아야~

● **진수** : 아~ 자주 만나자~ 그래요. 자주 만나서 우리 밥을 먹을까요? 술을 먹을까요?

▲ **호연** : 커피를 마시던지, 난 라떼를 만들 수 있어.

● **진수** : 그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 걸로 합시다.

우리 4층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잖아요. 더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해보고 싶은 것 없으세요?

▲ **호연** : 나 있지. 일일 호프 때 4층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

▲ **애경** : 아니야 언니! 그건 안 돼. 밖에서 해야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올 수 있잖아.

▲ **호연** : 1층, 4층 같이 하는 거지.

● **진수** : 탄진이 형은요?

▲ **탄진** : 보치야 하면 좋을 것 같아. 매일 연습할 공간이 없으니까.

● **진수** :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의견들을 주세요.

회장 땀을 때 총무 땀을 때 걱정되는 것 없었어요?

▲ **호연** : 걱정되는 건 없어. 해봐야 알지!

▲ **애경** : 부딪쳐 보자. 부딪쳐야 뭔가 해결 되지, 안 하면 몰라~

● **진수** : 그래요. 해봐야 알죠! 아까 말 한 건데, 학생들이 야학에도

잘 안 나오고 집회 현장에도 많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여서 아까 그런 공약을 낸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 **애경** : 응. 그렇지. 어떨 때는 나 혼자 공부 한 적도 있었어. 비

많이 온 날.

▲ **탄진** : 난 두 명!

▲ **호연** : 나랑 탄진 씨랑 들었잖아.
 ● **진수** : 두 분만요? 비가 문제네.
 ▲ **호연** : 차라리 비오는 날엔, 아예 문 닫지 그래.
 ▲ **애경** : 그럼 맨날 문 닫아야해. 비 온다고 문 닫고, 눈 온다고 문 닫고, 그럼 뭐 할 거야?
 ▲ **호연** : 눈 올 때는 와야지.
 - 모두 : 하하하~
 ▲ **애경** : 나 미치겠네.
 ▲ **호연** : 그거는 비랑 달라.
 ● **진수** : 보슬비는 어때요?
 ▲ **호연** : 그건 괜찮지. 보슬비는 괜찮은데, 소나기나 장대비 올 때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도 안 와.
 ● **진수** : 그럼 함박눈은? 함박눈 내리는 데 엄청 추워요, 그럼 어때요?
 ▲ **호연** : 눈은 괜찮아. 눈은 오면 탁탁 털면 대충 치워져. 근데 비가 와 봐. 턴다고 되나.
 ● **진수** : 근데 그건 누나 입장이 구. 전동은 오히려 눈 오면 다니기 힘들잖아요.
 ▲ **호연** : 나도 몇 달 있으면 전동 생길 수 있어.
 ● **진수** : 누나도 생겨요? 신체장애가 없어도 생기나?
 ▲ **호연** : 나도 장애인이잖아. 어떻게 하면 생기는데~
 ● **진수** : 누나 장애가 뭐예요? 말

해 줄 수 있어요?
 ▲ **호연** : 정신장애하고 뇌병변~ 그리고 청각장애도 있어. 그 두 가지가 복합이야.
 ● **진수** : 전에도 이렇게 정신장애인이랑 신체장애인이 같이 직책을 맡은 적이 있었나요?
 ▲ **애경** : 없었어.
 ● **진수** : 이렇게 장애 유형이 다른 사람끼리 직책을 맡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서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서로의 장애를 알아가는 계기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도 속 시원히 하고, 같이 밥도 자주 먹고. 그런데 다들 야학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 **애경** : 나 8년.
 ▲ **호연** : 난 모르겠어.
 ▲ **탄진** : 호연 씨는 20년?
 ● **진수** : 이렇게 서로를 몰라요. 한 공간에 같이 오래 있었는데.
 ▲ **호연** : 나 대충 아는데~
 ● **진수** : 개인적인 얘기가 사생활이니까 할 필요 없어도, 서로의 장애를 아는 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탄진** : 변호 좀 줘!
 ● **진수** : 호연누나 변호요?
 ▲ **탄진** : 응

▲ **애경** : 나도 알려줘.
 ● **진수** : 그럼, 지금 교환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모두 : 없어!
 ▲ **애경** : 없어. 더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야.
 ● **진수** : ㅋㅋ알겠어요. 그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충무를 뽑는데 얼마간 진통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내내 즐거웠다. 그 분위기를 여기에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쉽다. 아무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른다는 것, 앞으로도 알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알아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서로를, 노들을, 세상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노들야학 학생님들 선생님들 모두 모두 파이팅이다!!

【 교단일기 】

나의 몸짓을 찾아서

김탄진

- **어깨** : 잘 안 움직인다. 근육이 많이 뭉쳐서 아픈 일이 많다.
- **팔** : 조금은 자유로운 편, 오른팔이 더 잘 움직인다.
- **손** : 오른쪽이 더 편하다. 왼쪽 손가락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 **목** : 약간 잘 움직인다.
- **다리** : 무릎으로 길 수 있다.
- **발** : 발가락도 움직인다.
- **얼굴** : 얼굴 전체는 잘 움직이는 편, 입술도 잘 움직인다. 혀의 움직임이 어렵다. 발음이 어렵고 씹는 움직임이 어렵다.
- **허리** : 잘 굽혀진다.
- **눈** : 난시가 있다.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가 강직이 제일 심하다.



문혜란

- **어깨** : 왼쪽 어깨는 잘 움직이는데, 오른쪽은 어렵다.
- **팔** : 역시 왼쪽은 더 자유롭다. 오른쪽이 더 굳어 있다.
- **손** : 역시 왼손이 더 자유롭다. 손가락도.
- **목** : 자유로운 편이다.
- **다리** : 못 움직인다. 바닥에 아주 조금 길 수 있다.
- **발** : 왼발은 조금 움직인다.
- **얼굴** : 잘 움직이는 편, 입술, 씹는 것은 잘 되지만, 혀의 움직임이 어렵다. (발음이 잘 안 된다.)
- **허리** : 허리는 잘 굽혀진다.
- **눈** : 시력은 좋다.

*집이 아닌 낯선 바닥 공간에서는 움직이기 어렵다. 왼손, 왼쪽이 강직이 가장 심하다. 저녁에 자기 전에 근육이완제를 먹는다.

김미진

노들야학 연극반 교사. 연극이라는 도구를 통해 앞으로도 얼마나 잘 놀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함.

그/그녀들의 몸에 대하여

김명학

- **어깨** : 잘 움직이는 편이다. 양쪽 다.
- **팔** : 양쪽 다 잘 움직이는 편이다.
- **손** : 둘 다 불편한 편이지만 오른손을 더 잘 쓴다.
- **목** : 목은 자유롭다.
- **다리** : 양쪽 다 쓰기 어렵다.
- **발** : 양쪽 다 어렵다. 발가락도 잘 안 움직인다.
- **얼굴** : 자유롭다. 말도 잘한다.
- **허리** : 허리는 둔한 편이다.
- **눈** : 좋지 못하다. 오른쪽 시력이 나쁜 편이다.

*다리의 강직이 심하다. 심하게 움직이면 이(틀니^^)가 빠질 수 있다.

박지호

- **어깨** : 오른쪽 어깨에 탈골이 있다. (고칠 수 없다고 한다.) 어깨 움직임이 어렵다.
- **팔** : 왼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오른쪽은 어렵다. (오른쪽 팔이 뒤로 돌아가 있다.)
- **손** : 역시 왼쪽을 쓸 수 있다. (왼쪽 손가락은 잘 움직인다.)
- **목** : 목은 자유로운 편. 왼쪽으로 가 더 편하다.
- **다리** : 왼쪽 다리가 더 자유롭다.
- **발** : 왼쪽이 움직인다.
- **얼굴** : 얼굴 근육은 자유로운 편이다.
- **허리** : 허리는 굽혀진다.
- **눈** : 안 좋은 편. 근시, 난시가 있다.

* 왼쪽 어깨 탈골로 매우 아플 때가 있다. 근육이완제를 4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 근육이 뻣뻣해 질 때 가장 힘들다. 호흡이 힘들 때도 있다.

장애경

- **어깨** : 왼쪽이 더 자유롭다. 오른쪽은 잘 안 움직인다.
- **팔** : 왼쪽이 더 자유롭다.
- **손** : 왼손은 자유롭다. 오른손은 어렵다. (왼쪽 손가락이 손을 다치게 해서 봉대를 감아야한다.)
- **목** : 목은 자유로운 편이다.
- **다리** : 왼쪽 다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오른쪽이 어렵다. 왼쪽 다리에는 떨림이 있다.
- **발** : 왼쪽 발은 움직일 수 있다.
- **얼굴** : 얼굴 근육은 자유로운 편. 입과 혀도 편하다.
- **허리** : 허리도 잘 굽혀진다.
- **눈** : 근시가 조금 있다.

* 심하게 무리하면 왼쪽 자유로운 쪽도 아플 때가 있다. 근육이완제를 저녁에 한 번 먹는다.



위의 내용은 연극반에서 처음 몸짓 찾기 수업을 시작했을 때 몇몇 분들과 나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눈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서로에 몸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연극반과 함께 한지도 어언 4년이 됐어요. 우아~ 정말 신기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하게 될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요. 몇몇 분은 오고 가기도 했지만 지금의 연극반 학생들이 고맙게도 4년이라는 시간을 늘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야학의 연극반 수업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연극을 통해서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이자 공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에서 말과 행동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 고민부터 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보다는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도들이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우리

들의 이야기로 연극도 만들어 봤는데, 더욱 간절해 진 것은 우리만의 표현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체적·공간적인 측면의 제약도 생각해볼 문제였지만, 좀 더 우리다운 언어를 찾고 싶고 그것을 통해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일 수도 있지만 연기를 하거나 표현을 할 때 다리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몸을 옥죄고 있는 도구로 보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휠체어에서 내려와 몸을 써보자! 처음 이 제안을 연극반에 했을 때는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휠체어 위에서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바닥에 내려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학생 분들을 만나오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런 무모한 생각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몇몇은 즐겁게 생각하시기도 하며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타인이 보는 내 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몸 다스리기, 몸에 대한 감각 훈련 등을 해나갔어요. 촉감 훈련 때 지호 씨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눈을 감고 파트너의 손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 태어나서 엄마의 손도 이렇게 만져본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호 씨뿐만 아니라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군가의 손이나 몸을 만져본 기억이 몇 번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우리 학생 분들은 아마도 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요. 지금 저희 수업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



라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몸짓에 대해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지호 씨는 연극반에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아주 잘 움직이시고 표현력도 좋아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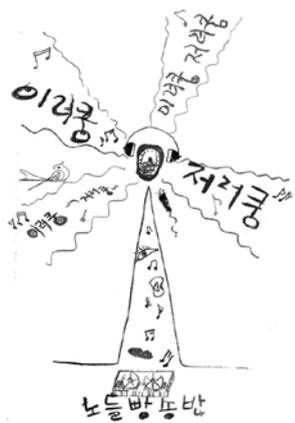
지난 학기를 마치며 다른 특활 수업반과 공동으로 특활반 발표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같이 하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갈 길이 멀고,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더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고 재밌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작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예요. 각자 흥미로운 주제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또 살짝 고민이 되네요. 이 글을 읽고 몸짓에 관해 흥미를 느끼신 학생 분과 교사 분들, 모두 모두 함께해요~^^!

【 교단일기 】

이러쿵저러쿵 방송국의 이런저런 이야기

허세준

노들야학에서 드문드문 수업을 한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지만 영화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현재 졸업 작품을 준비 중이고, 졸업 후에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 중이다. 오래된 장난감을 모으고 바이크를 탄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두 학기 동안 현정민 선생님과 함께 방송부 수업을 진행한 허세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 쯤 『노들바람』 지면에 신입교사 소개를 통하여 처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노들야학에 첫 발을 디딘지도 햇수로는 3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기로 야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과 함께 보조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레(?) 신입교사 과정을 밟게 되었고, 2015년에 수학 2반(1학기)과 방송부 수업을 맡았습니다.

방송부를 알게 된 것은 작년 교사수련회 때였습니다. 정민 선생님이 새 학기에 특활반 수업으로 방송부를 개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수업이라니, 흥미를 갖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민 선생님께 수업 보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결국(알 수 없는 힘이 이끌려) 정민 선생님과 한 주 쯤 번갈아가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공이 영화(영상)이긴 하지만 라디오 제작이나 방송에 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수업에 앞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버벅대면 어찌지 하며 온갖 걱정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장아(‘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의 줄임말) 팟캐스트를 만든 경험이 있던 정민 선생님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수업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라디오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했습니다. 갑갑한 시설에서 라디오를 즐겨 들었던 분도 있고, 직접 방송을 해본 분도 있었으며, 홀로 남은 집에서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라디오에 대

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 참 좋았습니다. 라디오를 즐겨 듣는 것만으로도 방송부에 들어오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방송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라, 라디오나 방송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스스로 방송을 제작하는 동아리 형식의 특활반을 만드는 것. 물론 초기에는 라디오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했기에 이에 대한 개론적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 방송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은 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방송부가 쪽 유지가 된다면) 언젠가 방송부는 교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주절주절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우리 방송부가 만든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이러쿵저러쿵 방송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는 이러쿵저러쿵,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방송에 담아내자는 취지로 만든 이름입니다. 야학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짝사랑 이야기를 단막극으로 만들기도 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야학 급식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방송반을 위해 야학에서 새롭게 구축해 준 방송시스템을 이용해 생방송으로 총학생회장 후보 공약도 들어보았고, 후원주점 때는 부스를 차려서 손님들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여러 방송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면에서 소개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노들야학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부는 참 재밌습니다. 녹음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여기저기 혼수를 두는 주원 형을 놀리며 깔깔대기도 했고, 걸핏하면 ‘싫어! 안돼!’를 외치는 남옥 누나의 개그는 다시 떠올려 봐도 재밌습니다. 시의적절한 때에 던지는 수연 누나의 추임새도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음향 효과가 되었습니다. 동림 형과 영애 누나가 해주시는 깊이 새겨 들을만한 이야기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열정적인 엔지니어 기훈 형과 매주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상용 형, 그리고 에이스 작가 상우 형 덕분에 방송이 더욱 풍성해 졌고, 언제나 성실한 기영 누나의 진행은 방송부가 활기를 띌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매력적인 방송부원들이 이끌어가는 이러쿵저러쿵 방송국은 올해에도 웃음꽃 피는 방송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일등 먹었어요!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를 이용한
'2015 전국 뇌병변·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응변 경진대회' 참가기

이상우

1982년 전주에서 출생. 충북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23년간 생활함.
현재 노들야학 학생.



작년 가을 어느 날,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받고 보니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에서 온 전화였다. 그쪽 협회에서 나와 함께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

다. 그것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고, 이 교육을 거쳐 '2015 전국 뇌병변·언어장애인 의사소

통 응변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였다. 그때까지도 'AAC'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알고 보니 AAC란 우리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친구 같은 기기였다. 실제로 나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프로그램 교육이 시작되었고, 며칠 후에 각조의 조원들이 발표되었는데 내가 속한 조는 2조였다. 그리고 조장까지 맡게 되었다. 그 후에 조별로 과제가 주어졌는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주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조는 조모임 또한 진행하게 되었다. 조모임 장소는 내가 현재 거주하는 평원재로 결정하였다.

우리 조원들은 서로 시간을 협의하여 주말에 드디어 첫 모임을 가졌다. 조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과자와 음료를 나눠 먹으며 과제 원고에 들어갈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공유한 내용을 정리, 작성하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날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조원들을 더 늦기 전에 집에 보내야만 했다. 원고 제출일이 바로 코앞이다 보니 원고를 어느 정도라도 마무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도 마감 직전까지 원고를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여 한뇌협에 무사히 원고를 제출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발표회에 쓰일 동영상 촬영이 남아있었는데 나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동영상 촬영 장소를 구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 부분은 다행히 한뇌협의 윤소라 간사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

하여 응변 경진대회에서 사용할 동영상 촬영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마침내 '2015 전국 뇌병변·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응변 경진대회' 날이 되었다. 전체적인 발표내용은 AAC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다. 실생활에서 흔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나열하였으며, 내용 전반에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가 의사소통이라는 걸 최대한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졌는지, 우리 2조 '거침없이 질주팀'이 일등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 응변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조원들의 호흡이 무척 잘 맞았고, 준비 기간 내내 서로 불평불만 없이 너무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는 것에 대해 조장으로써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일등을 한 것도 좋지만 그러한 준비의 과정이 나에게 무척 뜻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앞이 캄캄해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스무 살 딸 이야기

가나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소민이에게는 '오빠'라 불린다. 요즘에는 야학에서 지민이 형과 노는 것에 재미가 들었다. 경남 누나랑 싸울 때도 있고, 주원이 형에게 면박을 줄 때도 있다. 해운 누나한테는 종종 예뻐를 받는다.



작년 여름이 한창일 무렵이었을 게다. 나는 야학에서 흔히 '낮 수업'이라 불리던 수업을 맡고 있었다. 이 수업은 '천천히 즐겁게 함께'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된 발달장애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라 낮 수업이라고 불린다.

어느 날 '천천히 즐겁게 함께' 사업을 담당하시는 한혜선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생님은 낮 수업에 새로 들어오길 바라는 학생이 있다며 상의를 하고자 하셨다. 이름은 박소민,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이찬미 선생님 딸이란 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특수학교에 다닌다고도 하셨다. 내년부터 야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찬미 선생님 바람은 소민이가 먼저 낮 수업을 들으며 야학 생활을 맛보았으면 한다는 거였다. 소민이가 야학에 적응할 시간을 미리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혜선 선생님은 수업을 맡은 강사로서 내 의견은 어떤지를 물으셨다. 정원은 다 찬 상태였지만 한 사람 정도는 더 받아도 될 성 싶었

다. 그런데 소민이가 '중증 지적장애'라는 얘기를 듣고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다. 만일 들어온다면 소민이한테 수업 보조를 할 사람을 따로 붙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속으로는 찬미 선생님이 극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미 정원을 채워서 굴러가는 수업에 아직 졸업도 안 한 딸을 굳이 밀어 넣으려 하시나 싶었다. 사람 수가 느는 만큼 신경 쓸 일도 늘까봐 지레 잔걱정이 되기도 해서 더 그랬다. 그러고 나서 낮 수업을 맡은 선생님들끼리 소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더 나눴다. 우리는 결국 소민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뒤 소민이는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하반기부터 낮 수업에 종종 나왔다. 금요일에는 댄스반 특활 수업에도 들어갔다. 야학에 처음 왔을 때 소민이는 마냥 꼴을 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랬던 소민이가 이제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엄마를 졸라 야학에 나오고 싶어 할 정도로 야학을 좋아한다.

지난 2월 5일은 소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찬미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볼 겸 소민이 졸업식을 찾아갔다. 내 얘기를 듣고 고맙게도 노들야학교사 가비(김형호) 선생님과 김지운 선생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김유미 선생님과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최한별 기자님도 취재를 겸해서 함께 오셨다. 우리 일행은 졸업식을 지켜보고 나서 소민이네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다. 아래 이야기는 그때 차집에서 이찬미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다.

소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고민이 많아요. 활동하면서 엄마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민이는 전공과¹⁾ 1년

빼고는 이 학교에서 딱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공과도 사회로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인데... 처음에 전공과 과정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고작 2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공과가 이삼 년 과정이었다면, 저도 소민이를 보냈을 거 같아요.

소민이 앞날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역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마음 맞는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느냐.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만들게 하려면, 최소한 엄마 세 명이 목소리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지자체를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건 본인이 가진 생각이 확고해야 하는

1)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따로 열리는 전환교육 과정. 소민이가 다닌 c학교 누리집을 보면 전공과 전체 교과는 '주거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로 나뉜다. 직업생활 교과 가운데 직업기능 과목은 '운동화 세탁, 바리스타, 공예, 제과'로 나와 있다.



을 가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민이가 노들야학을 다니면서 어떤 오빠가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남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이나 기회가 있어야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노들에 다니기 전까지는 소민이가 이성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곳에

데, '내가 어떻게 구청을 접거해? 운동을 하려면 드러누워야 하는데, 나는 드러눕는 거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별나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죠. 면담이나 하러 가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담만 계속하다가 끝이 나요.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사람, 뒤에서 협상하는 사람, 연대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곳, 더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소민이를 쳐다보며) 저 친구를 잘 관찰하며, 잘 하는 영역을 지원해줘야 해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주의 깊게 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힘든 시스템이에요.

| 연애와 결혼

마냥 내 바람일는지 몰라도 소민이가 좋다는 사람만 있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해요. 그런 만남

서 만나는 오빠들 말 한 마디에 행복해 하고 '보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또 다르게 이성(性)에 대한 설렘과 만남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런 전반적인 지원에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저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충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 앞으로 소민이가 노들야학에서 어떻게 성숙해가길 바라는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노들야학이나 본인이 다니는 곳만이라도 스스로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봐 주면서 함께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회생활에 젖어들면서 조금씩 성장하길 바라죠. 또 다른 욕심이 있다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댄스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했으면 해요.

요즘은 소민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음식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수업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망사항이죠.

| 활동보조 지원

소민이는 활동보조 지원으로 한 달에 189시간을 받아요. 129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60시간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서 한 달에 10시간(통학 지원)이 잘려요. 하루에 6시간 정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용돈

소민이 한 달 용돈은 20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 안에서 마음껏 쓰게 해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그래야 자기 용돈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밥도 대접할 수 있죠. 그런 문화를 익히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소민이가 아직 계산을 못해서 현금으로 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카드로는 결제할 수 있어서 카드를 사용해서 용돈을 쓰고 있어요.

| 소민이가 어떻게 자립해 나가길 바라는지?

소민이가 앞으로 다닐 곳이랑, 소민이를 활동보조해주실 선생님이 자립 계획을 같이 고민해서 짚으면 좋겠어요. 활동보조 선생님이 어떤 역

할을 해줄 수 있다면, 하루 세 번씩 반복 수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집, 내 주변, 가는 곳, 이렇게 세 곳에서 무언가를 익히는 것을 반복하게 되겠죠.

| 소민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제가 늙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잖아요. '지금부터 애한테 사회생활을 익혀 주려면 내가 몇 년을 붙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했어요. 제가 삼 년만 소민이한테 밀착해서 지원하면 자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요즘 주변에서 몸이 약해지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많고, 갑자기 암이라고 진단 받은 엄마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엄마들 생각하면 내가 건강할 때 소민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학교 밖에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소민이가 학교라는 곳을 떠나면서 느끼는 막막함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 접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만들어지게끔 자원을 대고 '네 인생은 너, 내 인생은 나!'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 지금이 기로예요.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소민이는 질환²⁾ 때문에 날로날로 살이 찌고... 지원체계가 생겼으면 하는 건 간절한 희망이죠.

2) 소민이는 프레더 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이 증후군은 대뇌의 시상하부 기능장애를 동반하며, 소아시기 이후에는 과도하고 억제되지 않는 식욕으로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뒷이야기

졸업생이 ‘빛나지 않는’
졸업식을 지켜보며

나는 꽃다발과 선물을 사느라 졸업식에 조금 늦었다. 졸업식장에 들어서 보니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상을 나눠주고 있었다. 상을 주는 주체는 각종 장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들, 지역 정치인들, 관련 단체의 장들이었다. 지역 유지나 목사님 같은 분들도 끼어 있었다. 비디오투를 반복 재생하는 것 같았던 이 순서는 한참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이 지루한 시상식이 졸업식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잡아먹은 듯하다. 그 뒤 국회의원 이 아무개 의 축하, 교장 선생님 축하, 영상으로 편지한 졸업생들의 ‘학교생활 사진모음’ 보기, 졸업식 축하, 사진 찍기, 이렇게 식순이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한 마디를 매듭짓는 예식치고는 참 별게 없었다. 행사를 마친 졸업생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졸업장, 그리고 주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이 조금씩 다른 상들이 들려졌다. 축하를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은 졸업생이었지만, 이 예식의 주인공은 졸업생들이 아니었다. 이 예식에서는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오로지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뻘한 훈사만이 넘쳐나고 있었다.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주체’보다는 ‘객체’로. 마치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떠맡을지도 모를 배역을 이 졸업식이 미리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서 씁쓸했다.

그날 아주 오랜만에 졸업식 노래를 들었다. 문득 ‘빛나는 졸업장’이라는 구절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졸업생과 그 부모들에게 과연 빛나기만 한 물건일까? 고교 졸업 기념품, 학력 증명서 말고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들에게 특수학교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국가가 돌봐주는 ‘장기 보호센터’였을 수도 있다. 그것도 딱 12년 동안만, 그리고 청소년기까지만 한정해서 말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막상 갈 데가 마땅찮다.

그나마 ‘기능’이 좋다고 인정받는 극소수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일자리는 보호작업장이나 사회적 기업 따위를 포함한다. 시설이 좋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역세계 운이 좋은 경우다. 흔하게 찾는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는 그쪽에서 맘대로 정해둔 ‘○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른 복지관과 센터를 찾아 떠나야 한다. 그나마 장애인야학은 이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입학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거의 다 규모도 작고 운영난마저 겪고 있다. 앞에서 다룬 온갖 종류의 기관과 시설을 몽땅 다 합쳐도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모두 받아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 성인과 그 가족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마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달리 보면 이른바 ‘퇴거장’일 수도 있다. 그들을 오랫동안 붙들어주었던 울타리에서 강제로 쫓겨남을 알리는 증명서!

말미에 찬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앞이 굉장히 캄캄해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침에



문을 여는데 눈이 짝 차서 학교를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고 있자니 간혀 있는 느낌이예요.”

요즘 들어서야 나는 발달장애 성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찬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아득함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본보기였다. 현실을 알아가며 이제야 찬미 선생님이 보이셨던 모습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찬미 선생님이 너무 극성스럽다고만 여겼던 내 자신이 지독히 옹졸하게 느껴졌다. 찬미 선생님께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다. 이 글로나마 찬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극성스러움이 아니라, 부모들을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만드는 이 체계다.

상을 주었던 치들은 자신이 그 졸업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상을 주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이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겪게 될 삶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들은 정말 뻘뻘한 인물들이다. 축하를 한 국회의원은 성년후견인 제도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의원님은 축하를 할 때 뻘뻘 인사말만 늘어놓을 뿐이었

다. 나는 의원님에게 학생들 앞날을 위해 이런 입법 활동을 해보겠노라는 다짐이라도 밝혀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그들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나. 그들은 발달장애 성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누구보다 힘써야 할 이들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면 말이다. 그들이 졸업생들에게 베풀었던 ‘상’이란 무얼까? 거대한 눈덩이에 가로막혀 있는 아이들에게 모자나 우산, 또는 넉가래나 눈삽 따위를 겨우 쥐어주는 꼴이 아닌가. 돈이나 장비, 사람을 들여서 함께 눈을 치워주어야 할 그들이 말이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똥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소민이와 같은 발달장애 성인들을 위해서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내 감양으로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양심이 그런 위선과 기만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는 그저 함께 눈을 맞으며,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노을아 안녕 】

노들에 새로 입성한 독수리 오형제

오진희

고등학생들 문예 입시지도 하면서 연극도 하면서 공부도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열 재주 가진 신입교사.

나는 나와 화해할 수 있을까? 작년 우연한 기회에, 동네 어귀에 자리한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아래 협의회)에 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강사로 일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함께 구청에 인사를 다녔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보기에 따라선 경증이어서 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게다가 과외로 수입을 꽤 벌어들이고 있어서, 인식개선 강사는 경제적 문제와 무관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처음부터 나의 언어장애를 꼬투리 잡았고, 장애인은 마치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꼭 박혀있는 듯했다. 그런 구청 직원에게 나는 명함을 내밀며 '무슨 소리냐, 애들도 가르치는데 이깟 거 못 할 거 같냐'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난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진다.) 그런데 구청 직원 이전에 사무처장조차 내가 강사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의심했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었다. 그런 곳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나름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자부해 왔는데,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 인생 절반이 날아간 기분이었다.

사실 삼육재활원을 졸업한 이후로 비장애인들 속에서 경쟁하며 그들과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나로서는 새로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어디 가서든 우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겪는 배타적 경계는 당해봤어도, 무시라니, 기가 막혔다. 물론 나의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내가 극단 생활을 한다거나 공연을 할 거란 생각은 못 했으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 돈도 벌어야 했고 공부도 해야 했다. 모두가 벽이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했다. 나는 글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지식을 섭렵하는 일을 즐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뭐 하

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고 잡학다식한지도 모르겠다. 한 선배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가장 좋은 거라고도 했지만(물론 어쭙잖게 무언가 된 상태를 부정한 것이리라), 난 내가 성장해나가길 바란다. 그런 까닭으로 작년 여름 노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한번 호되게 데인 상태에서 마침 친구 재범이가 노들에서 일을 한다기에, 정말 나에게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 찾게 되었다. 그런 노들은 내 마음 속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사실 노들을 알게 된 것은 2008년 대학로에 위치한 (노들 바로 다음 골목) 중앙대 연극과 대학원을 다니면서였다. 물론 박경석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 접한 적이 있었다. 지하철 선로에 몸을 묶고 투쟁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던 모습 등. 저렇게 처절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이제는 정치적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들의 운동성은 매우 건강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학교 공부를 하고 연극을 보고 극단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우 바쁘게 살았지만, 2007년 겨울에 마로니에 공원에 터를 잡고 있던 노들의 천막 교실이 항상 신경 쓰였다.

그러다 천막이 사라지고 학교 가는 길 유리빌딩 건물에 노들야학이 생겼다. 아침에 콜을 타고 학교를 가다보면 꼭 '노들야학 가세요?'라고 물어보곤 했다. 그것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지 싶어 사실 썩 기분이 좋진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야 현재 다니고 있는 경희대학교를 가도 '경

희의료원 가세요?'라고 물으니까 꼭 대학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 나는 중대 수업 첫 시간에 내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배종옥 교수님이 나를 마치 연예인 보러 온 사람 취급하며 '넌 뭐지?'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것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내 소개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는데, 나도 욕하는 성격이 항상 문제다. 그리고 나선 학점 안줄까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발표 준비를 했다. 다들 알겠지만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비장애인 사회에선 어떡하든 인간적 배려가 주어진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과 가깝게 지





내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드러난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찢러댄다. 노들에 와서도 한동안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가끔 이 건 뭐고 저건 뭐지 싶은 일들이 있었다. 글을 쓰는 작업은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일이다보니, 나란 누구인가에 대해 객관화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좀 더 예민한 탓이리라.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들야학에 오게 되었다. 생소한 장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어 사람이나 사회 변화에 더 다가서는 내가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면 목표일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짝꿍 민구 선생님 말대로 노들을 나의 새로운 놀이터로 삼고 신나게 놀아 볼 생각이다.

나와 함께 신입 교사로 들어온 필순 쌤. 처음에 적응 못하고 투쟁 현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챙겨줘서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노들센터로 직장 자체를 옮기신 후 일이 많아져서 그러신가, 자주 볼 수가 없네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면서도 노들에 오신 은경 쌤.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얼마 전에 경험해 본 결과, 은경 선생님의 선택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말에 진정성을 느껴요. 그리고 언제나 활달한 여의 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가나 선생님 수업 참관 때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향수 뭐 쓰냐고 물어봤었죠? 생각해보니 겐조 플라워디라구요. 지하철 같이 타고 가면서 중대 대학원 다닌다고 해서 급친해졌죠. 역시나 영동 발달한 교장선생님의 영향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유만큼이나 언제나 쾌활한 에너지가 넘쳐 보여서 좋아요. 가끔씩 (청솔2반 개그팀) 준수

형이나 애경 언니, 다른 학생들과 서슴없이 대화하는 모습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에겐 아직 어려운 일이라서 말이지요. 저에게도 에너지 충전 좀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경훈. 나중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나랑 같이 수업을 하니깐.^^ 푸른어머니학교에서 어머님들 문예교육도 하고 운동 현장에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너의 모습에서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본다. 단 한 줄이라도 자기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와의 소통 내지는 시원한 쾌감이 무엇인지 학생 분들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한 학기동안 열심히 해보자. 노들에 새로 입성한 독수리 오형제의 활약을 기대하시라. 두둥~!

【노을아 안녕】

회자정리 거자필반 노들!

이러나

라나라나라나라나 날 좋아 한다고~ 사랑받고 싶은 청순한 소녀,
꽃 단 돼지 라나예요^^*

노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공간을 떠나지만, '노들아 안녕 안녕(bye)'은 아직까지는 '노들아 안녕 안녕>Hello)'처럼 기억될 것 같다.



서울에 처음 상경해서 겪었던 8개월의 고독, 콜센터 일의 잔혹함. 그리고 나서 나는 노들과 처음 어떻게 만났더라? 지금은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연 언니의 남편이자, 자칭 나의 초등학교 대선배님이자, 사회복지실습 슈퍼바이저였던 순규 선배, 그가 영하의 날씨를 웃돌던 2008년 2월의 어느 밤 마로니에공원 중앙에 근엄하게 설치된 천막으로 나를 인도하시었다. 근엄하다는 표현은 노들 천막야학을 접한 첫 이미지였다. 허름한 것이 아닌 마치 으스스한 대공전 같았다.

그곳에서 시작된 신입교사 활동의 약속으로 지금까지 나는 노들센터에서 활동했다. “너의 재능이 이곳에서 좋은 힘이 될 것 같다”는 달콤한 유혹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던 탓이다. 활동을 시작하고 3~4년까지는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들로 인해, 장애운동에도, 노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흥역을 치르게 했던 것 같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힘들게 공부하러 나왔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냉정하지냐!’ 등등. 지금 생각하면 웃프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조금씩 내게도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다. 인권교육, 동료상담, 그리고 일상이 된 운동 현장 등이 나를 고독과 잔혹함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건, 라나의 거칠고 안하무인 같은 성질을 끝까지 인내해 주고 받아준 노들의 동료들! 하지만 지금은 2008년부터 함께 한 이 노들이라는 공간에서 떠난다. 떠남의

이유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지만 돌아옴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교장 샘이 송별회 때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을 이야기 하셨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 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노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공간을 떠나지만, 지금과 전혀 다름없는 마음으로 또 노들의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고 그럴 거 같다. ‘노들아 안녕 안녕(bye)’은 아직까지는 ‘노들아 안녕 안녕>Hello)’처럼 기억될 것 같다. 감사해하며 함께 나누고픈 저 만치 지난 기억들과 앞으로 해 내고 싶은 일들에 대한 약속들이 꿈틀대기에!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이 문구를 향시 기억되게 해 준 곳도 이곳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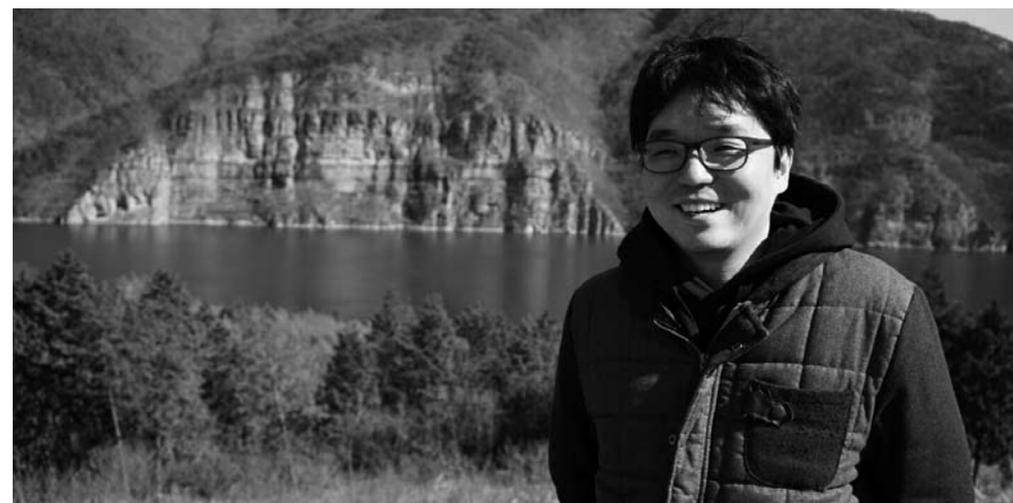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멕시코 치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

고군분투 33살 화이팅

박준호

전(前) 노들야학 상근자



지난해 노들야학 상근 활동을 정리하며 다른 상근 활동가들께 많이 미안했습니다. 남은 자리는 더욱 훌륭한 활동가들이 채우게 되겠지만, 떠나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저는 분명 어떤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 노들야학의 인사말에 아로새겨져 있는 저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두 가지 모두 떠나보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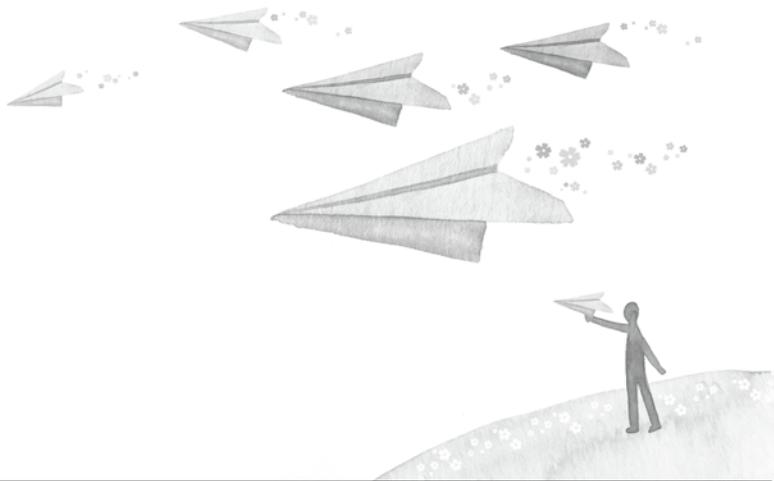
것 같아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야학 상근을 정리하고 나와서 1년. 그사이 저는 학원을 다니며 어떤 기술들을 배웠고, 웹개발이라는 아직은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렵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꽤나 늦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 저 같은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니다. ‘33’이라고 쓰고 보니 꽤 좋은 숫자

인 거 같은데, 이게 어딘가의 회사에서는 팀장이 되어야 할 나이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했고, 좋은 차를 타고 주말이면 가족과 야외로 나가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하는 나이여야 했나봅니다.

7년 동안 나를 열심히 노들야학에서 학생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투쟁했던 시간과 그 가치에 자부심을 좀 가질 법도 한데, 저는 이렇게 남들 시선을 신경 쓰면서(안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아니, 그건 내가 지켜야 하는 거지... 내겐데...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고 부정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나한테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다... 주문도 외우고, 나약한 고민들을 머리에 넣고 빙빙 돌리다가 어느새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회사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인정받고 일도 잘하게 되어서 사회의 정상성

에 편입되길 원하는 것인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는 야학을 나오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하게 된 것일까. 아니길.

어쨌든 시간은 가고 두 번의 개학식이 있었고 모포지가 있었고 노란들판의 꿈이 있었고 야학에는 많은 교사와 상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퇴근을 하면 야학에 너무 오고 싶어서 야학 교사로 복직을 했고 야학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꽤 열심히. 다행인건 아직 나한테는 남은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응원하는 야학 사람들도 있고, 전형적인 삶을 거부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혜나 용기를 주는 책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키고 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끝난 짧은 여행지에서 작은 돌 하나 올리고 제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노들이랑 함께하는 이 여행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 고병권의 비마이너 】

공상 말고 사랑을 하자



고병권

오랫동안 연구공동체 수유너머에서 밥 먹고 공부해왔으며, 이번 여름부터 무소속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다. 노들야학에서 철학교사로 지내왔고 최근에 잠시 휴직한 상태. 그동안 밀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으로 자기 충전 중!

니체만큼 기독교적 연민과 동정을 혐오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했던 철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가 불쌍한 이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을 비판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연민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람의 힘을 생리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연민도 일종의 슬픈 감정인지라 진심으로 그런 감정 속에서 몇 달을 지낸다면 우리는 아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 것이다. 연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동정을 베푸는 이들을 칭송하지만, 그런 선행의 대상이 되어서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사랑받는 이를 들뜨게 한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매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민과 동

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다는 것, 한마디로 불쌍한 존재라는 뜻이다. 기독교에서는 병들고 불쌍한 자에게 연민과 동정을 베풀라고 가르치지만, 니체는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병들고 불쌍한 존재로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니체가 이런 사랑을 비판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타인에 대한 폭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타인에게 동정을 베풀고 심지어 헌신적인 사랑까지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는 타인에게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권력자들이 있다.

이들테면 이런 유형의 선행가들이 있다. 이들은 선행을 베풀기 전에 먼저 그런 선행을 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공상한다. 비천한 자신에게 누군가 선행을 베풀어준다면 자신은 그것에 대해 틀림없이 깊은 감사와 충성을 보일 것 같다. 이런 공상을 거친 후, 그는 눈앞에 있는 대상도 자신의 선행에 대해 그럴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마치 드라마의 감독처럼 그는 모든 배우들이 그의 의지에 따라 느끼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런 사랑자들이 많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답시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 아냐?' 이들은 자신의 선행, 자신의 동정, 무엇보다 자신의 헌신적 사랑을 그 대상이 몰라 준다고 슬퍼한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랑이 그러하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이 그렇다.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사람들일수록 그 대상이 감사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사랑을 배신한 것은 그의 공상이다. 공상 속에서 그는 상대방을 인형놀이의 인형처럼 사물화 했다. 상대방의 감정과 태도까지 그가 정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상대방을 완전한 소유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독재자들의 망상이다.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백성의 완전한 지지와 복종으로 보답될 것이고 또 보답되어야 한다는 망상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복종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 연인에게 자신이 정말로 헌신적이었는지는 다음 문제다. 이 사랑이 폭정인 이유는 그가 사랑에 나서기 전에

이미 연인을 사물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간주했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은 진심으로 선행을 베풀었으니 사랑을 했으니 따위의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소유물로 다루는 것이야말로 권력자의 속성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의 경우에는 이 폭력성이 특히 심하다. 언젠가 어느 여성장애인으로 부터, 비틀거리며 걷는 자신을 부축한답시고 함부로 몸을 껴안는 사람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선행=폭력'만 그런 게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 중 비장애인들의 눈에만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장애인들을 얼마나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었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는 시설 책임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연인과 권력자를 가르는 것은 관계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임을 모른다. 내 앞의 존재를 사물화한다면 내 헌신적 사랑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내 소유욕의 강도뿐이다. 제발 공상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 형님 한 말씀 】

「쌍용자동차 승리보고 대회」

김명학; 노들 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승리보고 대회에 다녀 왔습니다. 날씨는 비가 가끔씩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는 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쌍용자동차 승리보고를 함께 축하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28명의 죽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리해고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얼마나 말할 수 있었을까. 노동법 개정이 논의 되는 시기. 사회안정망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해고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건, 그들이 '함께 살자고', '해고는 죽음이야. 라고 외롭게 계속 외쳐온 덕분에 아닐까. 그들이 손전담과 클록 위에서 그 어렵고 외로운 밤을 견뎌 버지 않았다면, 애한문 앞에서 노숙하는 인도의 어느 길가에서 삼보일배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이 하나 없 해고 노동자들만과 상황들을 알 수 있었을까.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자신들이 투쟁하는 이치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강정과 밀양에서 함께 싸우고 성소수자들과 연대 하면서... 2017년 까지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반드시 지켜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우리 사회에 좋겠습니다. 「정의를 반드시 승리 하리라」 쌍용자동차 동지들 그동안 투쟁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2016년 1월 23일 오후 1시에 용산 참사가 벌어졌던 옛 남일당터에서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가 있었어서 다녀 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이 있었던 화재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 시장은 건설 자본과 특기세력 등과 손 잡고 용산 재개발을 서둘렀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긴 힘없었던 임차 상인과 그 가족들은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때 경찰은 살인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 1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 당시 서울 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의 지휘 아래 이른바 국가 폭력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제2, 제3의 용산이 우리 주위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가 그 철거민들을 쫓아내고 금방이라도 건물이 올라 갈 듯이 개발을 서둘렀지만 지금은 공사가 중단 된채 주춧돌로 변해 있다. 이제 서서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남일당 이전 앞으로 용산 참사 추모제는 남일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7주년 추모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느라 많이 무거웠습니다.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고도 죄인인 사람을. 용산 참사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7년 전 용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책임자 감옥가는 즉죄가 아니다,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기쁘다 엘리베이터 오셨네

≡≡≡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고장인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로 출세하여 활동하고 있음.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놀듯이 일하며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었음.



2015년 12월 17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성탄절 선물 같은 '기쁘다 엘리베이터 오셨네' 행사가 열렸다. 복잡한 구조와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그곳에 드디어 장애인도 4호선에서 5호선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겼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그곳을 통과하려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했고, 그래서 적어도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또한 잦은 고장과 추락 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다. 지하철과 버스, 서울시청, 국가인권위원회, 이순신동상 등 접거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접거하면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한 물리적 투쟁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이동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을 했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그러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이 서명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것은 4호선과 5호선 환승 구간에 유동 인구가 많았고, 또 장애인 이동권연대의 간사 단체였던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한 역이었던 때문이다. 또 노들야학에는 강동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늘 원성이 자자했던 곳이기도 하다.

2001년에 그곳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서명도 잘 되었고 모금도 만만치 않게 되어서, 투쟁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서명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꼬마 아이가 다가 와서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이세요?"라고 물었다.

그날 나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 비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이 권리로 느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숨을 쉬기 위해 공기를 들이마시듯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었다. 좋게 말하면 '느낄 수 없었던 권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또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게도 느껴졌다. 선거제도가 생겨날 남자에게는 당연히 투표권이 있고,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

던 시절이 있었다. 가부장제의 사슬이 더욱 악랄했던 시절, 감히 여성이 선거를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혹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그러한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

지하철에 리프트만 설치해줘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어찌 감히 장애인이 이동권을 이야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만들라고 생떼를 쓰고, 더 나아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가. 말은 좋고, 내가 니 마음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쓸데없이 예산을 왜 낭비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시원한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없었다. 이동권은 권리가 아니었고 단어조차 없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2002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동권'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신어 자료집에 2003년에 처음 등록된다. 2005년에 우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제3조에 이동편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 모든 권리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법이나 성령이나 불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주먹이 바로 투쟁이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수많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지만, 그곳과 더불어 24개 역

사에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버렸다. 그러나 결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 이내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밤 11시가 다 되어도 장애인콜택시는 오지 않고 날씨는 춥고 해서, 지하철 혜화역(4호선)에서 답십리역(5호선)으로 이동을 해 집으로 가려 마음먹었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알아보았다. 24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나왔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추운 겨울밤 지하철을 탔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 30초 만에 환승에 성공하고 거짓말같이 24분 만에 답십리역에 도착했다.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밤에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타고 집에 가보는 게 나의 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상버스만 타고 집까지 가는 것이다. 불행히도 아직 대학로에서 집까지 가는 저상버스는 없다. 저상버스가 100% 도입되면 그 꿈 또한 이루어지겠지!



기쁘다 탈시설 오셨네~ 메리 탈시설!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확대를 위한
마로니에공원 연말 천막농성을 마치고

김재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전(前)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진정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발바닥행동이라는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있음.

지난 2015년 12월 22일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병원을 찾았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이것도 제때 안 받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썩 내किन 않았지만 내 몸과 피와 내부 장기들이 아직 쓸 만한지 의학적 판단을 받기 위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손가락 굵기의 전깃줄 같은 선이 내 입으로 들어가 내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그 시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는 두 채의 천막이 6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

2009년,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 고작 사람들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지역사회에서의 평범한 삶을 살고자 8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을 박차고 나왔다. 그렇게 그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천막을 치고 서울시를 상대로 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게 벌써 6년 전 일이었다. 그때의 요구로 서울시에서는 자립생활 체험홈(현재의 자립생활주택 (가)형)과 자립생활가정(현재의 자립생활주택 (나)형)이 생기고 자립정착금이 생겨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이른바 '탈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보호라는 명분하에 자신의 삶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기에, 끝까지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함께 할 동지들이 있다.

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관할 44개의 시설에 약 3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 2013년도에 서울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17년도 까지 총 600명을 '탈시설'시키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2017년이 머지않은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시설 밖으로 나왔고, 위의 계획에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도 '탈시설' 인원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서울시가 '탈시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새롭게 탈시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천막을 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서울시 관할 시설에 있는 약 3,000명의 모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할 것, 이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1,000개의 확보와 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을 현실화 할 것, '탈시설'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랬을까, 공권력의 별다른 폭력이나 제지 없이 훈훈하고 아늑한 천막이 세워졌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낮에는 기자회견과 간담회 등을, 저녁에는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투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번 천막 농성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12월 24일 밤 예배 형식으로 진행 된 '예수 탄생 축하 투쟁결의대회: 기쁘다 탈시설 오셨네!'였다고 생각한다. 한때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나로서는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따뜻했고, 그 어떤 예배보다 가슴 뛰었으며, 그 어떤 캐럴송보다 즐거웠다. 그곳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현재에 있었다면 그 누구도 누구를 속박하거나, 수단으로 삼거나, 차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였을 것이라 생각



한다. 12월 25일,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는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짧고 굵았던 천막 농성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천막 농성이 있던 지 약 한 달 후인 2016년 1월 28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요구안을 가지고 서울시장 면담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천막을 쳤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약 20분의 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TF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첫 TF팀 회의가 2016년 2월 3일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TF팀의 구성원 명단을 살펴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거주시설의 원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시설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왔던 대학교수 등, 많은 구성원들이 탈시설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인사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첫 회의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도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논점을 흐리고 지지부진한 논쟁거리만 남기는 것들이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에 TF팀의 구성원을 교체할 것, TF팀의 위상·목적·과제를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시설 측에서는 체험홈이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을 '탈시



설화'라고 명명하며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시설의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금도 시설에 격리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올바르게 되돌려져야 할 이 시점에서, 서울시는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 23일에는 서울시청에서 탈시설을 한 당사자들이 모여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을 비롯하여 총 15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 선언문은 탈시설 당사자들이 하나하나의 조항을 직접 고민하고 작성하여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선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천막 농성의 성과로 우리는 짧게나마 서울시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른 선물과 함께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은 아니었다.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촉구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지만, 이후의 TF팀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기에, 끝까지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함께 할 동지들이 있다.



광화문 농성장 야간 사수 도전기

서기현

IT업계의 비장애인들 틈바구니에서 개고생하다 장판에 들어와 굴러먹은 지 어언 15여 년.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소장으로 일하며, 오로지 주동아리 하나로 버티는 중.

2012년 8월 21일, 그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친절(?) 경찰들의 배려를 뚫은 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 한 편에 자리를 잡고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을 꾸렸다. 그로부터 4년 뒤,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아래 센터 판)은 자랑스런 노들 단위의 일원으로 3주에 한 번씩 농성장 사수를 맡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동료 활동가들에게 “오늘 야간 사수는 내가 맡는다. 음화화화!”라며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곤 한다. 하지만 이 허세는 정말 매번 허세로 끝나고 마는데, 이는 지역 단체 활동가들의 눈물겨운 헌신(?)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역 조직은 돌아가면서 서울에 올라와 농성장 사수를 한다.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한번 오면 당일치가 아니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등의 일정으로 온다. 우리 센터 판 일정과 겹쳐도 낮에는 함께 사수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 많을수록 더 좋다. 하지만 야간 사수를 할 때는 사정이 달

라진다. 침대가 하나라서 2명 이상이 함께 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역 단체에서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분이 함께 상경하고, 서울에서 광화문 농성장이 아니면 잘 곳이 없기 때문에 매번 지역의 동지들에게 밀리기 일쑤다.

사실 나는 작년 여름에 야간 사수를 해본 적이 있다. 그때도 여러 번 밀리다가 기회가 온 건데, 당시의 기억은 지금도 꽤 강렬하게 남아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모기 때문이다. 모기 한 소대가 나를 돌아가면서 물어대는 통에 도대체 잘 수가 없었다. 급하게 모기약을 사서 뿌려보기도 하고 몸에 바르는 모기약을 사서 이용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꽤 고생한 기억이 있다. 겨울이 되니 모기는 없어진 것 같아 또 자신 있게 야간 사수를 호언장담했지만, 역시나 내가 잘 수 있는 기회는 잘 오지 않았고 나는 의도치 않게 센터 활동가들에게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 겨울 들어 제일 추웠던 날, 우리 센터 판이 농성장 담당이 되었고 야간 사수도 함



께 걸려 있었다. 역시나 나는 야간 사수를 하겠노라 큰 소리를 친 상태였고, 확인을 해보니 지역에서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잘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추위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전기장판과 전열기가 있었기에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막상 당일 날 센터 판 활동가들과 농성장을 지키다보니 오전과 오후에도 많이 추웠고 밤에는 더 춥겠구나 싶었지만, 이 추운 날씨에 야간 사수를 하면 명분이 더 세졌지라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그러나, 저녁 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저녁 7시 쯤 식사를 하고나서 다른 활동가들은 갈 준비를 하고 나는 천막 안에서 야간 사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더니 점점 커져서 어느새 농성장을 집어 삼킬 듯한 기세가 되었다. 갑자기 광화문 광장에 그것도 역사에 분수가 설치된 건 아닐 테고, 이 겨울에 홍수가 난 것도 아닐 텐데, 놀라고 또 의아한 마음에 천막에서 나와 보니 농성장에서 10m 남짓 떨어진 곳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그냥 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폭포수같이 떨어지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수도관이 동파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날씨가 춥긴 추웠나보다.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지하 2층에서 수도가 터지다니...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 닿자 순식간에 살얼음이 낄 정도로 날씨는 추웠다. 그 물은 심

지어 계단을 타고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지하철이 운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했다. 역무원들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상황이 지속되자 역사 안은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 같았다.

그렇게 30분 넘게 물이 쏟아지자 지하철 역사 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도 농성장까지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물은 계속 그렇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또 지났을까. 광화문역 근처에 있는 종편 방송사에서 이 상황을 취재하러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웅성웅성대며 촬영을 해갔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주요 뉴스에도 광화문 동파 사건이 메인으로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는 농성장 집행부에게 연락을 했고, 야간 사수가 가능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진짜 야간 사수를 하고 싶었는데...

농성장 집행부 동지들도 하나 둘 천막에 도착을 했다. 다행히도 그 시점에는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수도가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터진 상태에서 파이프까지 깨지는 바람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농성장 바로 위 천장에는 그런 스프링클러나 파이프가 직접 지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중증 장애인 혼자 있기에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집행부의 비장애인 동지들이 야간 사수를 하기로 하고 나는 다음날 (그러니까 설날에...) 꼭 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쓸쓸히 그리고 짹짹하게 집으로 향했다. 나는 또 본의 아니게 허언증 환자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나는 설날에, 정말 혼자 쓸쓸하게 농성장 야간 사수를 했다. 약속은 지켰지만 야간 사수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앞으로도 나의 야간 사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사고라든지 아니면 지역 활동가들의 상경 사수 덕에 계속 뒤로 밀리겠지만 그래도 난 도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투쟁 의지가 마구 넘쳐서는 아니고 야간 사수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좋다. 그러니 야간 사수가 펑크 나면 저를 꼭 불러주시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테니!^^

정립전자 비리 사태를 보며

정립전자 원장이었던 김현국 씨는
일하는 직원의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있을까?

≡ 나해니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 경영지원팀장. 인쇄 견적, 지원사업 신청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맥주와 여행을 삶의 활력소로 여긴다. 춤 배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늦은 밤 오손도손 술 한 잔 하는 것을 좋아하며, 가끔 나만의 작은 방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정립전자 비리 사태

“지난 2005년 3차 농성 이후 10년 만에 다시 정립회관에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다. 회관이 운영하는 정립전자 김현국 대표(44, 원장)와 박 모(49) 판매본부장 등 2명이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 모(56) 씨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뉴스타파」 ‘무한반복 복지시설 비리... 해법은 없나?’ 2006.1.24 기사 중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작년 11월부터 관할 당국인 광진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의 비리 및 횡령 사태를 회피한 이사진의 전원 해임과 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 등을 추가 확인하고 ‘시보조금 중단, 보조금 환수, 낙하산 시설장 교체(공개 채용 선출)’ 등의 행정명령을 광진구

청에 내렸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직접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하였다.

이런 광진구청의 행태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민주적 운영과 348억이라는 초유의 횡령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광진구청이 오히려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16년 2월 19일 오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정립공동대위)는 광진구청 앞에서 ‘(복)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비리 및 횡령 사태, 광진구청의 안일한 관리감독 및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립전자가 2013년에 서울시 선정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때만 해도 누가 이런 일



이 터질 줄 알았겠는가. 당시 노란들판도 함께 선정이 되어 우수 사회적 기업 간담회와 공동영업단 활동 등을 통해 정립전자의 소식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정립전자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원장을 비롯한 핵심 운영진들에 의해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완수 이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나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보호작업시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대략 알고 있다. 해마다 정립회관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몇 날 며칠을 고생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결산 및 사업보고, 예산 및 사업계획 자료를 준비했다. 이 사진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평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사장은 정립전자의 운영 상황을 몰랐다고 반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 영화 「순응자」와 한국소아마비협회 —

지난 주말에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순응자」를 아리랑씨네센터에서 보았다. 영화의 배경은 무솔리니 정권하의 이탈리아다. 주인공 마르첼로는 평범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파시스트가 되어 정권의 비밀경찰에 자원한다. 그는 첫 임무로 자신의 스승이자 프랑스에서 정치학 망명 중인 반독재 인사 콰드리 교수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후기 파시즘 운동의 주도자는 베니토 무솔리니이며, 이 후기 파시즘에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가 우월하고, 징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직접 행동에 있어서 남성적 카리스마를 요구 또는 분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파시즘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자유주의의 반대가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키백과 '파시즘' 항목에서 발췌)

어떻게 보면 직장도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의 기관에서 몇 년간 근무할 당시 나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불공평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어떤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고 양심이었다. 되돌아보면 영화 「파시즘」을 떠올리게 할 만큼 두렵기도 했다. 내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으로서 정립공

대위 활동을 했던 그 즈음, 정립공대위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 노들야학 학생과 교사들, 장애인 이용자들은 한국소아마비협회로부터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시설장은 나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한 이사장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정립공대위 동지들과 있던 나의 사진을 사람을 시켜 몰래 사진을 찍게 해 고소한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은 며칠 후 시설장과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때 내게 명패를 던지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고 막말을 쏟아냈다. 그 추잡하고 성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당시 이사장실에 있던 소파를 가리키며 “내가 누우라고 하면 넌 여기에 누워야 돼!”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있다. 최근의 이사진 명단에는 그가 다니는 보문교회 소속의 인사들도 몇 명 있다. 나는 정립전자 비리 사태에 대해 발뺌하고 있는 그와 이사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 그 사람의 손을 제대로 본다는 것 —

정립전자는 LED 조명, CCTV, USB 저장장치를 주로 생산했다. 원장이었던 김현국 씨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있을까? 성실하게 일하며 삶을 꾸려가는 이들의 일상을 그를 비롯한 운영진들은 처참하게 빼앗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삶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생활의 일부이다. 그런 곳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는 2005

년 당시에도 그랬다. 출근 피케팅을 하는 내게 “너는 정립회관 소속도 아니면서, 상관도 없는 게 왜 피케팅을 하나!”라고 마구 따지며 구사대 역할을 자처했고, 단기간에 팀원에서 팀장으로, 임원으로, 정립전자 원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 이번 비리 사태를 보며 인간은 그 사고와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밖에서 안으로 —

정립전자에 ‘순응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모한 싸움을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이 있었기에 비리 사태는 밖으로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었다.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힘을 보내야 한다. 최근 정립공대위 회의에 한 번밖에 참석하지 못해 몹시 부끄럽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노라 다짐해 본다.

25년간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는 4차례(1990년, 1993년, 2004~2005년, 2015년)에 걸쳐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사태가 발생하였다. 버겁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는 변화가 분명히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립전자 비리 및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과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을,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이 객관적이고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을, 또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행정당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경석 교장 쌤이 최근에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독립진료소 이야기

≡≡≡ 박누리

(사)노들 소속으로 노들야학 교사를 하고 있는 누리입니다. (건조하게)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병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원에 물리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장비가 없는 곳도 많으며, 더 근본적으로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곳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노들의 장애인독립진료소는 (사)노들,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희대 한의학과 동아리 길벗에서도 진료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독립진료소는 격주로 진행되며,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실을 진료실로 사용하여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를 제공한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사)노들에서 장애인주치 의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덕분에 독립진료소에 오시는 장애인 환자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고, 환자분들의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 자신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활동도 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방문 진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다. 처음에는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어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보 문자를 보고 한 명의 신청자가 들어왔다. 이 신청자는 대학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의료진과도 스케줄이 잘 맞아 방문 진료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방문 진료를 가게 된 장애인 A씨는 거의 누워서 지내는 거 같았고, 의사소통은 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이 맞으면 발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이런 A씨는 살면서 침을 처음 맞아본다고 했다. 그래서 침 시술을 할 때 몸이 많이 경직되고 가끔 경련도 일어나긴 했지만, 진료 받는 것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렵지 않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첫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휠체어가 몸에 잘 맞지 않아 밖으로의 외출이 힘들다고 했다. 예전에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나갔지만 어느 날 휠체어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 뒤로는 휠체어에 앉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듯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A씨가 만약에 병원에 자주 갈 수 있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또 A씨가 이동할 때 적절한 보조기구가 있었다면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공학 기구를 봐주시는 선생님과 휠체어에 관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다.

두 번째 방문 진료 신청자인 B씨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호흡기를 연결하고 목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였다. B씨는 눈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맞으면 눈을 깜빡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다. B씨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사실 B씨가 사는 집 아래층에는 한 의원이 있다. 바로 아래층에서 올라와 한방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B씨는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B씨의 배우자가 한의원에 진료를 요청했으나 한의사는 진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처음 마주하는 케이스의 환자여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병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원에 물리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장비가 없는 곳도 많으며, 더 근본적으로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곳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사실 장애인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열악한 실정이다. 앞으로 남은 방문 진료를 다 수행했을 때쯤이면, 전국은 고사하고 일단 서울에서만이라도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과 환경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

드디어 나에게도 나의 집이!

하나,

지금의 이 행복을 앞으로 생길 애인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싶은,
3년차 탈시설 장애인 이병기 님의 이야기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음성 꽃동네에서의 14년간 생활을 청산하고 2013년에 드디어 서울로 입성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희망과 설렘 그 자체였다. 꽃동네에서는 규율과 규칙에 따라 생활하였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정한 시간에 맞춰서 먹고 자는 틀에 맞춰진 생활이었다.

서울에 와서 처음 지냈던 평원재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다. 평원재에서 살면서 야학을 다니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먼저 자립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듣고 준비

를 하게 되었다. 더 신나는 건 TV에서 보던 서울 구경을 원 없이 하며 돌아다니는데, 누구도 나를 막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나의 집이 생기면서 나만의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방을 구하면서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마침내 계약서에 내 이름과 도장이 팡 찍히는 순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이후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

기 시작했다. 집 주소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청구서가 내 앞으로 날아오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또한 수급비가 나오면 생활비를 어디에 얼마를 쓰고 저축을 얼마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머리가 아프지만 마음속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에서는 생각도 못한 여유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피곤해서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 12시에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이다.

지금 나는 내가 가져야할 자유를 이제야 누리게 된 것을 살짝 아쉬워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기회가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끝으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며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를 알아보았고, 어느 장애인권 단체를 알게 되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나는 일주일, 한 달을 기다리다 또 컴퓨터를 켜서 좋은 소식이 있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 빠지게 인터넷을 봐도 내가 바라는 글은 없었습니다.

나는 낙심과 좌절에 빠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이전부터 잘 아는 동생한테 이메일로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를 열어 봤더니 그 동생한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니까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었고, 이후 다시 확인을 해서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시설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간 곳은 평원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살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받는 수급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주택청약도 들고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학에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평원재에서 살 수 있는 계약 기간이 다 되어 이번에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 또 2년 동안 지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이번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봄이 되면 곧 이사를 갈 거예요.^^*

저는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을 하고 내 집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서 좀 살다 보면 실감이 나겠지요. 빨리 이사를 가서 새로운 나의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립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 활동가들, 야학 선생님들, 활동보조인들, 같이 사는 친구들, 교회 분들 등등 고마운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자립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글

컴퓨터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쇼핑과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언제나 잘 웃는, 자칭 장난꾸러기 이남옥 님의 이야기



2011년 2월 17일까지 나는 두 군데 시설에 있었습니다. 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되어있는 '화성 참 빛의 집'이라는 시설이었고, 또 한 곳은 인천 용진군에 있는 '해바라기'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몇 십 년 넘게 생활하다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설에서 죽는 것보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 번 나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는 시설에서 나가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척

【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삶의 동반자

≡ 박은영

활동보조인 일을 시작한지 이제 만 1년이 되어가는 초심자 활동보조인.
산행을 좋아하고 가끔씩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일을 즐긴다.



나는 1남 3녀를 둔 가장으로, 지방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자녀들 교육 문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와서도 지방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운영이 어려워졌고, 둘째와 셋째가 대학생이 되자 집안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돌파구를 찾다가, 2015년 1월에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하여 실습 과정까지 마치고 시험을 본 후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의 권유로 다시 노들 활동보조인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4월 초부터 이용자 두 사람과 실습을 하고 나서, 4월 말부터 지금의 이용자와 본격적으로 활동보조인 일을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번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하차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들으면, 그저 '아, 보폭을 좀 크게 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던 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동휠체어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이용자와 함께 뒤로 내리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다. 또 지하철 역사를 다닐 때 계단이 있으면 계단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로 별 생각 없이 이동했는데, 이제는 승강기의 위치가 역마다 어느 쪽에 있는지 찾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장애인의 일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50년 넘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게 된 것이다.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서도, 사람 사는 일인데 부딪쳐보면 별 어려움 없이 얼추 해내겠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장애인과 함께 다니다보니 전에는 겪지 못한 돌발적인 위험 상황이 종종 발생해 늘 긴장이 되었고, 일하는 요령도 부족해서 처음에는 피로감이 누적되어 갔다. 이용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해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어서, 우리는 같은 초심자의 처지에서 서로 웃고 고민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지난해를 보냈다. 특히 작년 4분기 때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집회 현장도 함께 다니면서 정말이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학창 시절에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보면 노동자에겐 노동자의 몫을,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몫을 돌려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일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보다. 이 사회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풍토와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본다. 또 이기적이고 똑똑한 척 하지만 실상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바보가 더 많아지는 세상을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활동보조인의 생활도 더 보람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금 엉뚱한 것도 같지만, 문득 이솝 우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노새 두 마리가 소금을 지고 가다가 그 중 한 마리가 물에 빠졌고, 그러자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다. 그 노새는 숨을 지고 갈 때도 짐을 가볍게 할 요량으로 물에 일부러 빠졌는데, 오히려 물 먹은 숨 때문에 짐이 무거워져 갇은 고생을 하게 된다. 나는 활동보조 일을 하는 동안, 그냥 다른 한 마리의 노새처럼 소금이 주어지면 소금을 숨이 주어지면 숨을 성실히 지고 가고 싶다. 내 편함과 이익을 위해 요령을 피우지 않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서로 남남의 존재로 만나게 되지만, 서로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의 폭력과 착각

“내 30대 인생을 빼앗아간 삼성, 그들에게 무릎 꿇고 보상받지 않겠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위한 농성, 한혜경·김시녀 모녀를 만나다

하금철

어쩌다보니 장판에 들어왔다. 어쩌다보니 또 기자가 되었다. 이렇다 인생이 온통 ‘어쩌다’로 채워질까 봐 두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어쩌다’의 연쇄 덕분에 ‘옹알이’가 아니라 공적인 ‘말하기’를 배우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산문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주제 넘는 꿈을 꾸며 산다.

지난 1월, 장관에서 일한 지 5년 만에 안식월이라는 것을 가졌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갑자기 주어진 긴 휴가를 어찌 써야할지 몰랐다. 고민 끝에 부족한 머릿수라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강남역 8번 출구 앞,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농성장을 찾았다. 글을 쓸 생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심히 지나치는 도심의 행인들 속에서도 매일 저녁 ‘이어말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비닐 천막 하나에 의지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이들을 보며 공연히 글 욕심이 났다. 이들의 싸움은 단지 산업재해 보상을 둘러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운동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한혜경·김시녀 모녀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외로운 싸움에 모두 함께 귀 기울이고 그들과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다.

도시의 혈관처럼 8차선으로 쪽 뻗은 강남대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강남역 네거리. 그 길 위를 수많은 사람과 자동차들이 마치 혈액처럼 바쁘게 움직인다. 그들이 실어 나르는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자란 도시의 근육들은 높게 솟아올라 밤낮없이 빛을 뿜어낸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

대로74길 11.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그 중에서도 단연 눈부시다. 외벽을 유리로 매끈하게 차려입은 이 건물 지하와 1, 2층에는 삼성의 화려한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홍보관이 자리 잡고 있다. “즐거움이 가득한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나 보는” 이곳에서는 오직 번쩍이는 조명과 환호만



이 어울릴 것 같다.

하지만 이 단단한 근육들 틈바구니 사이로, 영 어울리지 않는 상처 딱지 하나가 오체투지 하듯 납작 엎드려있다. 1인 시위에 쓰는 피켓 등을 대들보 삼고 비닐을 대충 얹어 놓아, 손으로 쓱 닦아 내면 쓸려갈 것처럼 위태로운 상처 딱지. 저 도시의 근육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이 작은 상처 딱지의 농성장은 130여 일 동안을 외롭게 버티며 요구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8년간 계속되어 온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피해자를 대표해 각각 활동 중인 반올림 및 가족대책위가 삼성과 지난해 조정 위원회를 통한 중재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독립적인 법인을 세우고 여기에 삼성이 1000억 원을 기부해 보상하자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삼성이 사실상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꾸리자 대화는 중단됐다. 그러는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부문 직업병 관련 제보자는 221명, 사망자는 76명

으로 늘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위로받을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그렇게 몇 달을 침묵으로 일관했던 삼성은 지난 1월 12일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만 우선 합의한 직후, 삼성은 이제 직업병 문제는 끝났다고 선전에 나선 것이다. 앞선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그랬듯이, 언론은 삼성의 발언을 충실히 받아 적으며 이를 ‘최종 해결’이라고 못 박았다. 이제는 이 귀찮고 보기 싫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겠다는 심사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딱지를 억지로 떼내면 상처는 더 커진다는 것을. 서초사옥 앞 이 작은 비닐 천막은 삼성이 억지로 떼 내려다 부풀어 오른 상처의 크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삼성LCD 기흥공장에서의 5년 8개월을 일하다 이제는 ‘1급 장애인’이 된 한혜경 씨(38세)와 그녀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삼성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상처가 온전히 그들의 책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작은 비닐 천막을 지킨다. 매주 주말 꼬박꼬박 춘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월 5일에도 모녀는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삼성LCD 기흥공장은 ‘생리불순’ 공장이었다

딸은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아빠 없이 힘들게 생계를 이끌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늘 지켜봤다. 그래서였을까. 딸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성적이었는데도 여상에 진학했고, 3학년 재학 중 일찌감치 취업을 나갔다. 현대, 엘지, 삼성 등 굵직한 대기업 원서들이 학교로 쇄도했다. 1995년 가을, 한혜경 씨는 삼성을 선택했다. “나는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남동생은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취직할 수 있잖아”라며 남동생 대학 등록금도 보탬다. 힘겹던 가정 형편에도 큰 힘이 됐다.



입사 3개월 쯤 지났을까. 주말에 집에 온 딸은 5시에 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엄마, 나 그 전에 좀 깨워줘”하고 잠이 들었다. 엄마는 4시 30분에 딸을 깨웠지만, 딸은 ‘조금만 더’를 몇 번을 되뇌다가 다음날 새벽까지 잠만 잤다. 친구를 만나지도 못했고, 집에서 밥 한 끼 못 먹은 채 회사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딸은 집에만 오면 항상 잠만 잤다.

일이 고되어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불안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또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삼성 같은 크고 훌륭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으리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소녀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엄마, 우리 공장에서는 생리 안 나오는 애들이 나 말고도 정말 많아.”

“생리 안 나오는 애들 대부분 산부인과 가서 치료 받고 약 타먹으면 다시 나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가끔 피부에 붉은 점도 생겼다. 그러다 생리를 하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게 다 생리를 못해서 그런가보다 했지만, 퇴사하기 2년 전부터는 생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일을 그만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회사를 나왔다고 마냥 놀 수만은 없어서, 집 앞 마트에서 과일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자꾸 어깨가 아파왔다. 걸음걸이도 이상해졌다. 엄마가 매번 “똑바로 좀 걸어”라고 말해도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 건데, 자꾸 몸이 옆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감기는 거의 한 몸처럼 달고 사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던 끝에 종합병원까지 가게 됐다. MRI 검사 결과, 뇌종양이었다. 2005년 10월 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첫 수술을 했다. 그 이후로 10년의 시간을 대부분 병원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월체어 한

대와 ‘장애 1급’ 복지카드를 얻었다. 한혜경 씨의 지난 30대 인생과 맞바꾼 것이다.

“10억 줄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만나자”

딸이 그렇게 된 게 삼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LCD공장에서 일했으니 전자파 때문이었거니 했지만, 그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 천형처럼 내려진 이 병이 전적으로 삼성에서의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반올림을 만나고 난 후였다.

춘천으로 직접 찾아온 반올림 활동가들은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다. 삼성의 다른 공장 작업 현장 사진이었다. 환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공간이었다. “내가 일한 현장은 여기보다 더 심했어.” 한혜경 씨는 답했다. 그녀가 작업 중 사용했던 솔더크림의 주요 성분이 납이라는 사실도 이때 처음 알게 됐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었기에, 다른 대기업 다 제쳐두고 선택한 삼성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삼성을 신뢰했고 삼성에 헌신했던 노동자에게 자기 손에 묻히는 약품이 어떤 성분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철저하게 기만당한 채 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그 이후로 삼성으로부터 부쩍 전화가 많이 왔다. 2011년 어느 날, 삼성으로부터 직업병 보상 문제에 있어 ‘다리 역할’을 위임 받았다는 노무사가 춘천으로 찾아왔다. 동석하는 반올림 활동가 없이 따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가 내놓은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보상금으로 10억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금식으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혜경 씨의 장애를 고려해 월체어를 몇 년 주기로 교체할 금액, 워커와 침대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80세가 지 다달이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시녀 씨는 처음엔 그 달콤한 유혹에 잠시 흔들렸다고 고백한다. 몇 년째 이어진 딸 수발로 이미 그녀도 지칠 대로 지쳤던 것이다.

얼마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났고, 삼성 측 노무사가 만나자는 전화를 했다. 이번에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따로 만나자는 말을 덧붙였다. 김시녀 씨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다. 한편 반올림 측에서는 모녀와 협의해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날, 정확히 오후 5시 10분(김시녀 씨는 시간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노무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왜 소송을 했냐는 거다. 그리고는 소송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송 못하게 하려고 10억 주겠다고 한 겁니까?”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돈으로 나를 꾀었던 거구나... 그들의 교활함에 치가 떨렸다.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욕두문자들이 거꾸로 솟아올랐다. 그 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화기 건너편 삼성의 꼭두각시에게 쏟아냈다.

가해자는 삼성인데, 왜 우리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려야 하나?

한혜경 씨의 투병 이후 모녀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됐다. 삼성과 벌이고 있는 힘겨운 싸움을 지지해주는 이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인데도, 그나마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일 뿐이다. 돈벌이는 고사하고 딸을 혼자 두고 개인적인 일을 보러 다니기도 겁이 난다. 김시녀 씨는 딸의 이마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애를 놔두고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얼마 전에는 안경 부러트리면서 다치고... 다리에 멍은 또 얼마나 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최근에는 그래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관 등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나마도 한 달 128시간 뿐. 고작 하루에 4~5시간 풀이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치료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다. 복지관에서 받는 재활치료도 한 달에 9~11만 원 가량 내야 한다. 빠듯한 모녀의 살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은 지난해 합의한 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무시하고,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을 집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150명 신청자 중에 100명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보상 받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미 ‘10억 노무사’의 농간을 경험한 적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는 두 모녀도 이런 주변 상황에 종종 흔들리곤 한다. 그럴 때면 반올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싸워온 사람들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김시녀 씨는 이제와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던 생각이 옳았음을 확신한다.

“지금 그 보상 받은 사람들은 이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보상 받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이 약속을 깰 경우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삼성이 잘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한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다고 따져가면서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각서에 사인을 해야 하나고요?”

모녀는 삼성이 원하는 대로 돈 몇 푼 받고 떨어질 수 없었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것은 단지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산재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이 그들에게 가했던 모욕과 짓밟힌 인간적 자존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2014년 첫 공식사과 발표 자리에서 한 말은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였다. 지난달 재발방지대책 합의 후 발표한 사과문에도

“아픔을 헤아리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뿐이었다. 사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인정이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산재 신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막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모녀는 참을 수 없었다. 김시녀 씨는 가해자인 저들 앞에서 입에 재갈이 물린 채로 보상받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타인의 발을 돌보고자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 시간이 조금 넘는 인터뷰 동안 정작 당사자인 한혜경 씨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를 갖게 된 딸을 대신해 어머니 김시녀 씨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말미에 지금 요구하는 산재 인정과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혜경 씨에게 물었다. 그녀는 느릿한 발음이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나머지 생은, 발마사지 하는 걸 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발마사지 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여러 차례 뇌종양 수술을 거치며 쇠약해진 그녀에게 손가락 힘을 이용해야 하는 발마사지는 어쩌면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가락 힘

의 여부보다 더 마음을 끌었던 것은 그녀의 눈이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힘없고 약한 한 여성은 타인의 신체 중 가장 낮은 곳인 발 밑을 바라본다. 반면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세고 가진 것이 많은 저들은 언제나 타인의 머리 위로 향하고자 한다. 힘없고 약한 자는 타인의 발을 돌보고자 하지만, 힘세고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짓밟아 올부짚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조차 돌아보지 않는다.

강남역 8번 출구. 가장 낮고 차가운 곳에 납작 엎드려 있지만 수백 명이 달하는 전자산업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비닐 농성장과, 가장 높고 화려하게 뻗어있지만 주위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잔인한 대비를 이룬다. 삼성은 이 대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당신들이 야기한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타인을 돌아보려는 이들 앞에 겸허히 몸을 숙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로부터, 삼성의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의 평화



홍은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불수레반 담임이다.
2014년 7월 야학 상근활동을 그만두는 순간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었다. 도서관에 앉아 멍 때리며
일기 쓸 때가 제일 행복하다. 데모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구교현과 결혼했는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버려서 걱정이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는 '벽관'이라는 것이 있었다. 벽에 서 있는 관이라는 뜻이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넣었다. 갇히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잘릴 듯 아프며 정신이 돌아버렸다. 사회주의 운동가 이재유는 일제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다 이곳에 갇힌 지 14시간 만에 그 뜻을 접었다. 노들야학 학생이었던 조아무개는 꽃동네에 산다. 8년째 침대 밖을 벗어나 본적이 거의 없다. 밥도 누워서 먹는다. 반찬을 잘게 다져 국에 말아 준다. 작은 일은 소변줄로, 큰 일은 관장으로 해결된다. 영딩이가 저려울 즈음 직원이 체위를 바꿔준다. 정신이 돌아버릴 때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온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벽관이다.

입소 후 4년 만에 만난 그는 우리에게 '배가 고프다' 했다. 감자탕을 양껏 먹은 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 했다. 그리운 목소리

를 들으며 늑대처럼 '우, 우' 소리를 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끝내 그에게 '나가고 싶냐' 묻지 않았다. 대신 '지낼 만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힘없이 긍정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후 그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른이 넘어 술을 배웠고 장애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술을 찾았다.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를 경찰이 가난한 어머니에게 인도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얼마 후 그는 시설에 보내졌다.

연말정산철마다 그를 찾았다. 그리고 작년 겨울 그가 결국 말하고 말았다. "나가고 싶어." 시설 쪽은 가족의 허락을 전제했다. 가족은 물론 반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가고 싶다는 그에게 나는 열 번 스무 번 고쳐 물었다.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는 가족의 허락 없이도 퇴소할 수 있고 주거와 정착금도 받을 수 있다. 시설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이 벽관의 문이 오래전에 풀렸다는 걸 갇힌 사람들만 모른다. 그러니 질문은 실상 나를 향한 것이다. 벽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양상한 어머니를 밀칠 자신이 있는지. 문을 열면 곧장 나를 덮쳐올 그를 업고 얼마간 전력 질주할 체력이 있는지. 그의 손에 술이 아닌 다른 것을 쥐게 할 대안이 있는지. 나는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피했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 흔들지 말라'는 애원은 점점 호통으로 변했다. 닫힌 문 너머에 어머니의 일상이 있었다. 그것 또한 지켜져야 했으므로 나는 암전히 돌아섰다. 그에게 '어쩔 수 없다' 전하고 다음번 연말정산철을 기약할 작정이었다. 그때 함께 간 동료가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 넣었다. "허락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그녀가 벽관의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온갖 사람들의 평화를 계산하는 동안 그녀는 그 계산에서 빠진 단 한 사람을 보며 그저 신발 끈을 묶었다. 부끄러웠고 부러웠다. 그녀는 멋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수십 명의 탈출을 도와온 그녀는 싸움닭처럼 세상을 들이받으며 시설 바깥에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소록도 100주년을 맞아 전남 고흥군이 40여년간 한센인들을 돌보았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한다고 한다. 한센병력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들의 섬 소록도는 오랜 세월 차별과 폭력, 단종과 학살이 자행된 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침묵의 땅이었다. 수녀님과 같은 이들이 있어 갇힌 사람들은 고통을 덜었을 것이나, 덕분에 그 고통은 100년이나 지속되었다.

그 지속 가능성은 분명 어떤 평화에 기여했을 것이나, 그것은 실상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가둔 사람들, 소록도가 아니라 소록도에서 바라본 육지의 것이 아니었던가. 오래전에 깨어지는 게 더 좋았을 '당신들의 평화' 말이다.





김유미

야학 급식과 낙산 산책을 좋아한다. 야학을 휴직하고 몸보신하는 게 목표인데, 급식과 낙산 때문에 못 떠나고 있다. 이 책 『노들바람』을 좋아한다.

2월 말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바라는 네 번째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416합창단의 노래 공연이 있었다. 무대 옆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합창단의 얼굴이 크게 하나씩 지나갔다. TV에서 보던 유가족의 얼굴, 집회 무대에서 보던 이들의 얼굴이 흘러가던 중에, 반가운 얼굴 하나가 있었다. 얼마 전 야학에서 만난 단원고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 님이었다. 작은 체구의 최순화 님은 노란색 점퍼를 입고, 앞줄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최순화 님 옆에서 노래를 하는 어느 중년의 가슴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학생증이 걸려있었다.

감정이 북받치면 말을 한다거나 소리를 내는 게 어렵다. 노래는 아예 부르지 못할 것 같다. 감정이 좀 다스려지는 시간이 온 것일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노래 한 곡을 마치고 마이크를 잡은 중년 남성의 발언은 중간 중간 끊어졌다. 그렇게 울면서, 울음을 참으며 이야기를 전하는, 노래를 부르는, 416합창단의 곤란이 가슴에 와 박혔다. 최순화 님은 야학에서 이야기를

나는 날에도 거의 절반의 시간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모아 합창을 한다. 무대 아래 나는 울음을 삼키고 옆 자리들이 훌쩍였다. 눈물들이 빛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위대해 보이는 과잉의 상태로, 이 지독한 일들이 해결되어 나가길 바라보았다.

세월호 참사가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무엇이 해결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뉴스에서도 세월호 소식을 접하기 어려워졌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의 이웃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농성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이 시절을 향해 소리 내고 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계층 모를 사람들이 모여 인터뷰집과 영상, 영화를 중간다리 삼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야학에서도 세월호 집담회가 열렸다. 겨울방학을 며칠 앞둔 지난 1월 26일, 교실 두 칸을 뜬 공간에 교사, 학생들이 배곡히 모여 앉았다. 교실 안쪽에 자리 잡은

노들야학에서 만난 세월호 사람들

2016년 1월 26일,
416세월호와 노들야학 집담회

전동휠체어를 탄 이들은 꿈쩍거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공동 저자인 은전 언니가 집담회 사회를 맡았다. 나는 이 책이 전국 순회를 마치고 마침내 야학에 온 것 같았다. 집담회에는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 님, 광화문 서명지기 조미선 님이 함께해주셨다. 우리는 「바다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함께 본 후 이야기를 나눴고, 두 시간 꼬박 진행됐다. 그날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보니 A4 용지 15장이 넘는 분량이었다. 녹음된 목소리를 글자로 옮겨 적으며 또 여러 사람이 흘쩍었다. 뜨거운 것이 출렁거리며 쳐들어오는 듯했다. 그날 나는 이야기 전문은 야학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다. 이 지면에는 그날의 이야기 아주 일부만 가져왔다.

제목: 방식

아주 방식이 비싸더라도 우리 엄마 무릎 밑에 앉고 싶어요.

이창현 (단원고등학교 2학년 5반)

홍은전 창현 학생이 쓴 시인데요, 시가 너무 귀엽고 따뜻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창현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창현이는 어떤 아이였고 어머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최순화 그냥 보통의 열여덟 살을 지내고 있는, 지내고 있었던 보통의 청소년이었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제일 좋아

하고 게임 좋아하고, 또 엄마를 제일 싫어하고, 사춘기라. 창현이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도 사춘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대화는 됐거든요. 근데 남자 아이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말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사춘기의 특징이었는데 저는 저를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를 싫어했다기보다 사춘기의 특징이었어요. 창현이 가고 나서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는 됐는데, 그게 제일 속상하죠. 서로 좋은 모습을 보다가 헤어진 게 아니라 저도 오해를 하고 창현이도 오해를 했던 거 같아요. 엄마가 별로 지 안 좋아한다고. 그건 있었어요. 제가 낮게 평가하는 거. 왜냐면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공부도 안 하지 부모에게 살갑게도 안 하지.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이 좋아보이지도 않고. 아무튼 엄마의 기준이,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다 미달이어서. 제 마음속으로도 그랬어요. 사실은 낮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제일 미안해요. 그냥 보통의 아이였는데, 그게 사춘기 때 당연한 거였는데, 그걸 몰라준 게 제일 미안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아들이었죠.

홍은전 다음 질문은 조미선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



는지, 그리고 광화문 서명지기라고 소개해주셨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조미선 난생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저와 관계가 없는 사건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정말 미안해하고 이렇게 애도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꽃보다도 더 예쁜 아이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죽는 모습을 저희가 TV로 지켜봤잖아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옆에 있는 창



현이 엄마가 저와 동갑이거든요. 희생된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또래인 거죠. 그러다보니까 감정이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 아이가 그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참사가 사회의 부조리의 총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단원고 아이들이 정말 그날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그 곳에 탄 것이지 우리 아이가 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깐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TV만 보고 울고만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참사 초기에 정말로 많은 봉사자들이 진도로 내려갔잖아요. 저는 그때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5월 들어서면서 시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빠져요. 그때 1박 2일 코스로 해서 단원고 이름으로 봉사자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서 남편과 2014년 5월 16일 처음 진도를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된 곳이 팽목항 검안소 앞에 있는 가족대기실이었어요. 그곳

에 하루 종일 있었고요. 올라오는 시신이 없어서 남편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5월 17일 참사 32일이 되던 그날 새벽에 한 학생이 수습이 됐어요. 그 학생이 2학년 8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올라온 아이였어요. 조찬민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의 시신을 검안소에서 보게 됐어요. (...)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런 참사를 두고도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나랍니까? 당연히 바뀔니다. 그렇게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서울로 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바뀌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요, 진상 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실 규명조차도 안됐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찬민이 어머니한테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팽목항에 또 1박 2일로 몇 번을 내려갔다가, 7월에는 국회에 가서 피켓팅을 했어요. 죽음 앞에 진실을 말

하라고, 피켓팅을 하루 종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광화문 농성장이 차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그때부터 서명지기가 됐어요.

홍은전 며칠 전에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상을 받았어요. 그때 창현이 어머니께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16 참사 후에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고요. 참사 후에 저희도 시민사회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부정부패, 탐욕, 무책임,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계산하는 풍토가 만연한 한국 사회를 그 이전으로 돌릴 수 없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인데요. 저도 그 구호를 좋아했습니다. 창현이 어머니가 일기에 쓰신 게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가장 슬픈 게 뭐냐고 누가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나는 가장 슬프다’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아프더라

고요. 만약에 저라도, 한국사회가 아무리 더러워도, 못 참을 만해도, 다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참사 후에 어머니의 삶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장 크게 변한 게 뭔지 어머니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마음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일 많이 변한 건 마음이죠. 저도 똑같이 살았어요.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최고의 목표였고, 그거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맞벌이를 해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서민으로서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그게 쪽 곤어지더라고요. 노후는 어떻게 될지,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피하고 그냥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전부였고,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땅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 그 정도 꿈이었는데, 그게 제 꿈의 전부였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아이 둘 중의 하나가 없어졌는데, 다 없어진 거더라고요. 그니까 가족 네 명 중에 한 명이 사라졌는데 가정이 다 파괴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병으로 죽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일 텐데, 전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벌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의문투성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은 더 불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 겉으로 보기엔 그대

로 있는 것 같지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다 가정이 파괴된 거죠. 모든 사람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생존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살아남은 생존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더 길잖아요. 이번에 12일에 졸업한 그 아이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그니까 자기들 친구를, 친구 250명을 한 번에 잃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안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저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은 그냥 진실 규명인데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꿈이 다 없어지고, 내 가족의 꿈이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뭘 갖다 준들 그게 좋겠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건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감았던 눈이, 감겼던 눈이 떠졌다고 표현해야 할까?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자들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약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은, 이전에 바랐던 성공, 잘 사는 것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도 신앙인인데, 하느님 믿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마음이 약자들을 향해 있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온전히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더라고요. 온 마음이, 온 시선이 약자들을 향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안 거죠. 이제 안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감사한 일인데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의 삶도 그런 삶을 따라갈 것 같아요. 이전에 그냥 평범한 삶을 꿈꿨다면 조금 더 의로운 삶, 나은 삶, 약자들을 위한 삶에 시간도 들이고 마음도 들이고 또 몸도 그렇게 항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과 소감 몇 가지

● **김명환**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에서 이창현 학생 얘기를, 어머니가 인터뷰한 것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방석’ 이야기하고, 이창현 아버님이 새누리당 김무성 씨한테 무릎 꿇는 대목이었어요. 제가 많이 속상하고 그랬습

니다. 왜 이창현 학생 아버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끝끝내 대통령이나 그 사람이나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이 이 대한민국 권력자의 대표로서 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

는 그렇게 냉정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슬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병들어가는 사회이고,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두 귀, 두 눈 다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힘내서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 **홍은전** 제가 며칠 전에 세월호 때문에 어떤 자리에 나갔는데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유가족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나에게 온 변화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떤 게 변화가 있냐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게 잃었을 때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상상.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가족 분들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저희도 옆에서 봤으니까 아 저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정말 보기가 힘든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일부 썼지만, 다른 사람들 꺼 보기도 힘들고요. 제가 쓴 걸 제가 다시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눈물이 펄펄 나거든요. 그래도 그 책이 되게 힘이 있는 책이에요. 어떤 힘이 있냐면, 그 책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

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싸우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를 지키는 것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박경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잘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광화문 밑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을 천오백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고 장애등급제도 폐지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럴 건데, 그 믿음만큼 세월호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쟁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노들야학은 그렇게 생각하죠? 함께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 **홍은전**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그 곳에 계속 있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그 차가운 거리에, 여전히 가열차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들야학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건강 잃지 마시고, 노들야학도 언제나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담회 내용 전문은 노들야학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학로야 같이 놀자 】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인가요?

2015년 종로구 편의시설 모니터링과 전시회를 마치고

송무림

(사)노들 소속 활동가이며, 응급알림e, 권익옹호, 평원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리와 수납'에 꽂혀서 정리해야 할 게 보이면 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이게 좀 과해서 가끔 두통이...^^



2015년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종로구 지역에서 총 10군데의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를 나갔습니다. 롯데리아, 아르코예술극장, 서울시립정독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등 모두 평소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곳들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만 설계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

니다.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구역 등의 손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공립기관인 시립정독도서관과 국립민속박물관마저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곳인데, 왜 누구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할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시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전시된 사진과 글들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연인도, 가족도 그리고 아이들도.

시민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포스트잇을 통해 전달된 시민분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 인권적이지 않은 사회, 편의시설은 인권이다.
- 식당에 턱을 없애고 은행도 자동문이면 편히 들어갈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 무심코 지나치고 이용해왔던 시설들인데, 편리함을 함께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걸 모르고 지낸 게 미안하고 안타깝네요.
- 아직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서로 조화되어 서로 상생 가능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평소 불편함 없이 편하게 생활하던 제가 무심결에 보게 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진전을 접하고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일상생활에서 눈여겨보지 못한 것이 많이 죄송하고 먹먹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애·비장애인을 떠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시회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나름의 매개체가 된 듯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

공무원 인권교육을 다녀와서

김동림

석암재단(현 프리텔)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2009년에 자립한 탈시설 7년차 장애인. 노들장애인야학 한소리반 학생이고, 탈시설을 하려는 후배들 멘토 활동과 인권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나갔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많이 해봤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나가보기는 처음이다. 처음 나야 장애인권교육 센터에서 강의를 제안 받았을 때, 나는 망설였다. 아직 학생들에게도 인권이란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내가 공무원 교육이라니, 웬 말?

교육 장소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었다. 공무원 교육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겠지 생각했다. 첫날 교육을 가보니 1층에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5층 교육장에 가보니 대 실망. 왜냐하면 나의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가려고 보니 경사로가 없어서 이동경사로를 설치하여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을 마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 5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1층으로 내려가야만 해서 번거로웠다. 비장애인만 이용하는 교육장이 아닌데, 당연히 장애인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층마다 장애인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교육 중에 여성 공무원 한 분이 서울시인재개발원 측에 이야기를 해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교육을 나갈 때는 일부러 수동휠체어를 타고 갔다. 공무원들에게 경



사료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 갈 때 공무원들이 밀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흥건하게 흘렸다.

그렇지만 매년 그렇게 하자니 나도 번거로워, 이후부터는 그냥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서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몇 번 나가다 보니 나도 그냥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른다. 송국현 동지의 영상을 보여 주면 그제야 얼마나 힘든지 조금 아는 듯도 했다. 또 고속버스 타기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그건 집회 아니냐고, 또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명절이 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차가 가지 않는 곳도 많고, 또 기차 타고 가면 번거롭게 이동해야 하는 곳이 아직 많다. 하지만 고속버스 타면 번거롭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갈수 있다.

또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덧붙인다. 2시간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부터는 장애인을 도와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꼭 물어보고 도와주라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권강사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나는야 여러분의 친구, 야마가타 트윅스터~

한반

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라는 이름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리반에 연대한 이후 거리로 내몰린 자들의 투쟁과 저항의 현장에 노래와 춤으로 함께하여 뜨거운 불을 지피는 민중엔터테이너가 되려고 합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
'기쁘다 탈시설 오셨네' 예배 후
새벽송 거리 행진에서

맨날 거리에서, 무대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춤추고 노래하며 웃고 절규하며 여러분을 만나다. 이렇게 지면으로 조용히 만나게 되니 조금 쑥스럽네요. 반갑습니다! '야마가타 트윅스터'로 "장애등급제 나쁘자나~ 부양의무제 나쁘자나~"라고 노래하며 뜨겁게 여러분을 달궂주는 한반입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노래나 춤이 아니고 글로써 저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면을 주

신 노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면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 말도 별로 없고 숫기도 없어서 공연이 끝나면 공연 장비와 의상을 챙겨서 부리나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노들과 전장연, 『비마이너』가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게 되면 없던 힘이 용솨아 오



롭니다. 없던 스티커도 생겨나 스스로없이 제 몸을 일어서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야말로 민중 엔터테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노들(야학)은 제가 2009년 즈음 '아마추어 증폭기'라는 이름으로 음반 「수성랜드」를 막 만들어 알리던 그 때, 음반을 주문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음반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들에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리반에 결합해 활동할 즈음, 극단 판에서 연락을 주셔서 판 개소식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9월에 광진구에서 장애인등급심사 철회 요구 집회를 할 때, 급조했지만 노래 하나를 준비해 가서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몸의 부자유가 삶의 부자유로 이어지면 안 된

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겪었던 삶의 부자유, 그 속에 응어리진 마음들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투쟁에도 조그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머잖아 그럴 기회가 왔지요. 언젠가 모 개그 프로그램의 “나쁘잖아~”라는 유행어를 활용해서 노래를 만들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탁받고 만든 노래 「나쁘자나송」으로 부단하게 외쳤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나쁘자나송」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로 만들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절망의 울타리를 제거하는 데 즐겁게 쓰이길 바랐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이들도 가끔 따라 부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2013년 12월 1일 '세계 장애인의 날' 집회에서 발표된 「나쁘자나송」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올려져지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다리를 세종대왕 동상 쪽에 대고 그곳에 올라 플래카드를 펼치려 했었지요.

The 힘
The 춤
더 힘나게 하고
더 춤추게 합니다



The힘
The춤
The기쁨
함께해요!
투쟁!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만방에 밝히려 했지요. 공권력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더군요. 우르르 몰려든 경찰들이 사다리를 막고 대치할 때, 저는 지금에서야 솔직히 밝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대였던 돌판 위를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휠체어에 앉아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어느 분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고, 계속 노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박경석 교장선생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앞에서 수십 차례 이단열차기로 발차기를 하며 노래하고 절규했었지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야마가타 발차기로 교도소 문이 아작 났다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의 공연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점거해서 멋지게 행진했잖아요.

여러분의 말, 웃음, 함성과 몸짓, 몸은 비록 휠체어 위에 고정되어 있지만 제가 춤추고 있을 때 함께 덩실 덩실 따라 나와 춤추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그 춤. The 춤,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는 그 춤에 힘입어 이렇게 힘이 납니다. 더 힘이 납니다. The 힘. 발차기도 저질도 울분도 더 힘차게 표출됩니다. The 힘, The 춤. 더 힘나게 하고 더 춤추게 합니다.

부자유적 삶의 원흉, 속박된 삶의 주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반드시 철폐시키고, 또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분들을 복직시키고 함께 기쁨



나누고 싶어요. 더 힘, 더 춤, 더 기쁨.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곳에 가서 아파요(아름답고 파격적인 투쟁의 가요) 계속 선보이겠습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괴롭지만 아름답고 멋지게 이 투쟁을 이어나가요! 우린 이 싸움이 이길 것을 믿어요! 함께해요! 투쟁! 더 힘, 더 춤, 더 기쁨!!!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에서 활동한지 8개월 째 접어든 장애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욕을 먹더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성격 안 좋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일 하지도 않아도 돈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사회에서 요판 일, 저판 일 등등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들을 밝혀내려고 애를 쓰는 학문을 사회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회학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 중에 갈등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론은 사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발생하는 일들이, 상반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등 두드려 주며 의견 차이를 좁혀가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갈등이론은 오히려 사회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끊임없는 싸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회에는 돈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명령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 밑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갈등



이론은 그래서 이 사회는 이 두 집단이 쉴 새 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하고, 돈 없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두고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 된 것입니다. 1800년도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몸을 사용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의 몸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쓰임새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이, 당신들, 세상을 좀 살기 좋게 바꾸고 싶다면. 근데 당신들은 우리 장애인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혼자 속으로 품고, 세상 좀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도 장애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가 가장 낮은 계급인데, 장애인들은 그 가장 낮은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장애인들이 프롤레타리아라고, 아니 이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민중총궐기에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선두에 서서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차들을 막아 행진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께서 맞아 쓰러지셨던 물대포를 같이 맞아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광화문 네거리를 지키며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당하고 정의로운 프롤레타리아로 또 시민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과연 우리 장애인들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시민, 같은 프롤레타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투사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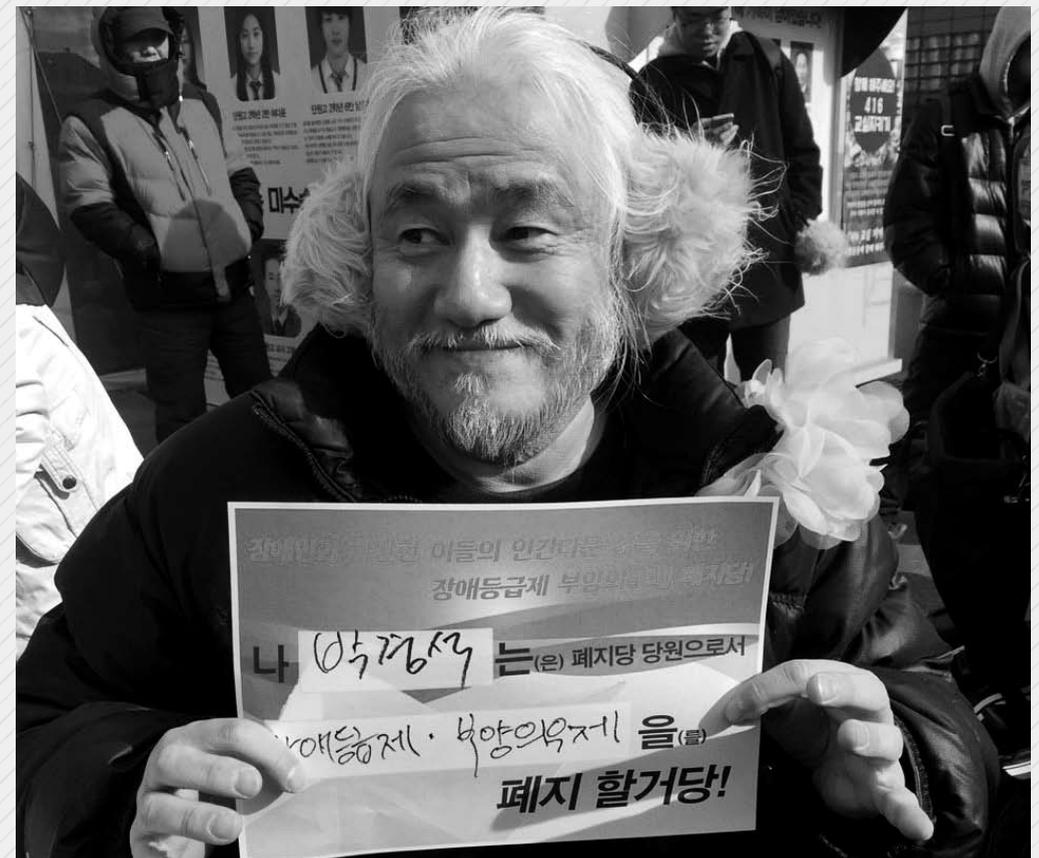
요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든 다치거나 병 때문에 그렇든, 몸의 어느 부분이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프롤레타리아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수급비를 받아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시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끼리 이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도 프롤레타리아도 아닌 우리는 ‘장애인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계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계급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에 함께해요!

한명희

노들야학에서, 그리고 광화문 지하역사 2층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명희예요. 놀러 와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농성장이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지하역사 2층에 차려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그날은 비가 억울함을 풀듯 억수로 쏟아졌지요. 104년만의 단단한 가뭄이라고 그렇게 연일 TV에서 떠돌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간이 처음 만들어지고 며칠 동안은 경찰의 검문 때문에 책상 하나 침낭 하나 광화문역사 안으로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농성은 4년째가 되었습니다. 농성장에 썩어빠진 먼지만큼이나 무수한 발길들이 광화문 농성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농성장은 그렇게 각자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대체 뭘까요? 처음 광화문역사 농성장에는 우체통이 놓이게 됩니다. 당시 2012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달라는 편지를 시민들과 함께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각기 다른 글씨의 마음들이 날개 돋힌 듯 먼 곳 그들의 공간까지 갔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광화문농성 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이 복지제도들은 낡고 낡아 부서져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지요.

장애등급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6월~12월 사이, 기존의 1~6급으로 나누어져있던 장애등급을 개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3급까지'를 '중증'으로 그리고 '4~6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증/경증 단순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1월 26일 보도자료



누군가에게
맡겨진 정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직접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활동을
'길' 위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시범사업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장애등급의 중증/경증 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 내용은 등급이 버젓이 살아 있는 거짓 행보이며,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의 죽음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하게 완화하여 12만 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117만 빈곤층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소득기준 완화로 12만 명이 신규 수급을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홍보했지만, 사람에게 맞춘 제도인지, 예산에 맞춘 제도인지,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제도인지가 우리의 삶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농성 4년차, 아침 출근길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에 이제는 더 이상 상처 받지 않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서명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부에 인사 건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며 우리가 폐지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당’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사회의 차별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정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직접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활동을 ‘길’위에서 만 들고자 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당’은 2016년 2~3월 기간 동안 당원 모집과 인증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뜨거운 연대의 인사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총선이 끝나고 폐지당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광화문역사 지하 2층 농성장은 단단한 우리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참여 개인 입당비용

1만원(이상), 입당 시 폐지당원 노트제공

● 계좌번호

국민은행 488401-01-230807
(예금주: 박경석(분홍종이배))

● 동의서&인증샷을 팩스(02-2179-9108)나 광화문공동행동 SNS,
또는 이메일(dact@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폐지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며, 20대 총선기간 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대 시민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태수야2’ 음반을 소개합니다



김중환

1989년 결성된 성남지역 노동자 노래모임 ‘아우성’의 멤버였고, 이후 전국장애인인권가족협회 노래패 ‘노뚝돌’, ‘장애인문예창작단’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집행국장으로 일한다. 「점거하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봄날」 등의 노래를 만들었다.

‘태수야2’ 음반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태수야’ 음반이 나온 뒤 무려 13년 만이네요. 이전 음반이 정태수 열사가 즐겨 부르던 곡이나 좋아했던 노동가요 등으로 채워졌다면, 새 음반 ‘태수야2’는 장애인의 삶과 애환, 투쟁의 의지를 담은 노래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당당하게 외쳐봐 해방 세상을
장애해방 사람세상을
전동이 앞장서서 밀어붙이면
우리 꿈도 가까워진다
(‘시선’이 부른 「뚝뚝」 가사 중에서)

무엇보다 이번 음반의 가장 큰 특징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노래패 ‘시선’은 이번 음반에서 「뚝뚝」, 「옹달샘」, 「세상속으로」 등의 노래를 직접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선’은 골형성부전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등이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노래패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현실과 투쟁의 의지를 당사자들이 직접 노래로 담아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먹을 거 혼자 먹을 줄 아냐고
밖엔 어떻게 나왔냐고

어디에 가냐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고
혼자 할 줄 아는 게 뭐 뭐 있냐고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냐고
나라에서 돈은 얼마나 받느냐고
어쩌다 장애인이 됐냐고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뭐 뭐 있냐고
비 오는데 왜 나왔냐고 묻지 말고
지금의 절규를 들어봐
(한날의 랩 「우리는 긴다」 가사 중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태수야2' 음반에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쓴 가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 가사는 중증장애여성 정은주 님의 시 「지나친 관심」의 일부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어쩌다 바깥에 한 번 나갈라치면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장애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풍자를 담았습니다. 래퍼 한날 동지가 멋진 랩으로 만들어 불렀지요. 중증장애남성 박정혁 님의 시 「저상버스」도 노동가요 작곡가 김호철 님이 가락을 붙여 멋진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피눈물의 거리에서
손짓 발짓 몸짓으로
억눌려 참았던 설움의 분노를
차가운 아스팔트에 뺏는다
(「그날들을 기억해」 가사 중에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일하는 최진영 님의 시도 노래로 실렸습니다. 장애해방운동의 한 획을 그은 지난 2006년 한강대교 투쟁이 떠

오르는 노래이지요. 「점거하라, 「봄날」 등 제 노래도 음반에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추모제 등에서 노동가수 박준 동지가 열사의 어머니께 불러 드리면 모두를 눈물짓게 하는 「편지5」(윤민석 글, 곡), 투쟁의 현장에서 모두가 흥에 겨워 따라 부르는 여성 듀오 '다름아름'의 「천천히 즐겁게 함께」(김호철 글, 곡), 빈곤과 장애와 여성으로 힘겨운 삶을 살다 떠나신 열사를 기리는 「최옥란 열사 추모가」(박태승 글, 곡), 정태수 열사가 살아생전 심혈을 기울인 노동권의 의미를 담은 「노동은」(김호철 글, 곡) 등도 이번 음반에 들어 있습니다.

음반의 마지막 곡은 널리 알려진 「태수야」입니다. 이 곡은 열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하

루 만에 만들어져 장례식장에 애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사랑하는 후배를 보낸 슬픔에 박준 님의 녹음은 몇 번이고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투쟁의 현장에서 힘을 북돋는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코끝 찡한 일입니다.

'태수야2' 음반에 가장 많은 곡을 쓰신 분은 노들 음악대를 지도해주시는 김호철 선생님이십니다. 음반에 실린 총 21곡 중 13곡을 직접 만드시거나 가락을 붙여주셨네요. 주옥같은 곡으로 장애인운동에 함께해주시는 김호철 님께 다시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음반 '태수야2'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 열사를 추모하는 음반입니다. 정태수 열사는 1980년대 말부터 싹튼, 장애인 운동청년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을 거치며 20여 년 동안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면서 불

꽃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열사는 지난 2002년 장애인 청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모꼬지 뒤풀이 도중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태수 열사는 노들야학을 만든 구성원이고 현재 교장 선생님이신 박경석 님을 노들야학 교사로 꼬신 분이기도 합니다. 1995년경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노래패 '노들돌'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김호철 님을 찾아가 「장애해방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지금도 이 노래는 투쟁의 현장에서 힘차게 불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모음반 '태수야2'가 많은 활동가와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달되어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조그마한 밑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들야학 창립 멤버인 정태수 열사를 생각하며, 노래를 짱 사랑하는 경남 님을 포함해 그들의 식구들이 이번 음반에 더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길...^^

'태수야2' 수록곡

- | | |
|--|--|
| 1 턱을 헐어요(글, 곡 김호철 / 노래 다름아름) | 12 휠체어 타고(글, 곡 김호철 / 노래 황현) |
| 2 우리는 긴다(작사 한날 / 노래 한날) | 13 노동은(글, 곡 김호철 / 노래 박준) |
| 3 천천히 즐겁게 함께(글, 곡 김호철 / 노래 다름아름) | 14 웅달샘(글, 곡 김호철 / 노래 이라나) |
| 4 그날들을 기억해(글 최진영 곡 김호철 / 노래 김종환) | 15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글, 곡 김종환 / 합창 김종환, 박은영, 권영주, 이혜규, 황현) |
| 5 점거하라(글, 곡 김종환 / 노래 이혜규) | 16 최옥란 열사 추모가(글, 곡 박태승 / 노래 이혜규) |
| 6 편지5(글, 곡 윤민석 / 노래 박준) | 17 내 몸의 급수(글, 곡 김호철 / 노래 다름아름) |
| 7 사랑하는 어머니께(글, 곡 박태승 / 노래 김종환) | 18 세상 속으로(글, 곡 김호철 / 노래 시선) |
| 8 덩벼(글, 곡 김호철 / 노래 시선) | 19 봄날(글, 곡 김종환 / 노래 김종환) |
| 9 저상버스(글 박정혁 곡 김호철 / 노래 다름아름) | 20 입을 위한 행진곡(글 백기안 곡 김종률 / 합창 이혜규, 권영주, 박은영, 황현, 오숙희, 박란희) |
| 10 짱이(글, 곡 김호철 / 노래 김한) | 21 태수야(글, 곡 김호철 / 노래 박준) |
| 11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글 김종환, 김호철 곡 김호철 / 노래 김종환) | |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알고 보니 후원인, 노들야학 댄스반 교사 원해선!

한명희

노들야학에서, 그리고 광화문 지하역사 2층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명희예요. 놀러 와요.

금요일 오후 4시, 노들야학의 복도에 노랫소리가 찰랑찰랑하게 울립니다. 그 옆 교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도 “긱방망이 짹짹, 긱방망이 야”,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 중에도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의 가사가 들리죠. 심지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나오는 스피커의 기계음이 아닌 실제 육성으로 말입니다. (이 육성은 댄스반 선생님의 춤에 맞춘 구호와 노랫소리입니다.) 이번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에서는 노들장애인야학의 오랜~ 후원인이자, 댄스반 선생님이기도 한 원해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선 반가와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야학 댄스반 ‘노세노세’를 세계적으로 이끌어 가고 싶은 노세노세의 댄스 선생님 원해선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실용무용과를 전공했어요. 졸업한 이후엔 팀에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다양한 곳에 있었던 거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죠. 그때도 새벽에 팀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보니 춤은 제가

살면서 한 일중에 가장 뜨겁게 함께 하고 있는 일인 거 같아요. 요새는 오전엔 다른 비장애인들을 강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들과의 인연이 오히려 신기한데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나의 오랜 친구인 노들야학 한명희 씨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노들야학의 문을 두드리고 온지가 벌써 햇수로 7년이 되어 가요. 2010년에 노란들판의 꿈 달오름판(저녁행사)에 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춤을 연습해서

올라가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춤동작만 가르쳐 주면 된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노들야학에 오게 되었죠. 처음에 왔을 때는 휠체어를 탄 2~3명의 학생들과 비장애인 교사들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죠. 확실히 다른 곳에서 함께 호흡하며 춤을 추는 느낌과는 많이 달랐어요. 요새는 군무라고 해서, 딱딱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춤동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나니까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혹시나 수업 듣다가 상처 받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춤이라는 것은 음악과 함께 하는 거고 음악에는 리듬이 있으니까요. 리듬에 맞춰 몸을 자유자재로 흔들흔들 춤을 추어 주셨고, 손을 올려야 하는 동작이 있는데 수빈 언니가 발을 올리시는 걸 보고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 외부에서 와서 연습을 하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데,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5일을 연습한다고 치면, 5일 동안 한 번씩 매번 다른 분이 오실 때도 있었죠.

해선은 노들야학의 오랜 후원인이기도 한데요, 가끔 후원 내역에서 이름이 빠질 때도 있고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죠? 예술은 가난한가요? 춤 선생님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 예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 굶지 않을 만큼은 됩니다. 저의 일상은 오전 수업 그리고 노세노세 수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여유롭게 자유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업상 많이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에 비하면 원래 태생적으로 게으른 편이라 집 밖으로 잘 나



오지 않아요. 요즘은 의무적으로라도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술은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술은 잔인하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훗.

그렇군요. 제가 해선과 각별한 사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노들야학에 오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중 노세노세가 수업 중 큰 힘이라는 것도요. 노들야학 댄스반을 기반으로 구성된 공연팀 노세노세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노들 댄스팀 노세노세가 생긴 지는 이제 일년이 좀 넘은 거 같네요. ‘노세노세’라는 센스 있는 이름은 경남 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노들야학에서 주최하는 행사, 농성장이나 집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종종 섭외가 들어오고 있고 반응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벌써 그런 외부 공연을 한지도 한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노세노세 공연을 하면서의 고민은 학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포인트되는 안무라던가 노래를 외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느낌 속에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호흡

한다면 더 빛나는 무대가 될 거 같아요. 반복되는 연습에 가끔 지겨워하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흥이 날 수 있을까 고민도 해요. 하다보면 알거든요. 오늘은 서로 호호하고 있구나, 오늘은 산만한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어요.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저의 몫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은 댄스반의 수업이 한 시간 동안 원 없이, 지금까지처럼 흥나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들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춤이란 해선에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저에게 춤이란 스웱~!입니다. 춤은 저에게 절대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평생 즐기 못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11년 째 춤을 추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고, 춤 앞에서 두렵고, 그

저 잘하고 싶고, 나의 한계를 이기고 싶고, 또 이겨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아하는 만큼 어려운 게 춤이라는 말입니다. 하하. 그리고 노들은 저에게 고마운 곳입니다. 선생님께서 노들에 가지만 오히려 제가 배울 때가 더 많은 곳입니다. 삭막하고 복잡한, 가끔은 더러운 세상에 치여 있을 때, 노들에 가면 정수기에서 물이 걸리지듯 저도 정화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훗훗.

노들에 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 앞으로도 잘 해봅시다!!!

좀. 더. 길. 게. 해보세요.

● 긴말은 필요 없어. 짧게, 임팩트 있게!

**2016년 2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Oh Sung Choy 감광국 강경완 강귀화 강문형 강미진 강병완 강복원 강성운 강수혜 강영미 강유선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고경신 고영진 고동수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양숙 고재현 고정화 고재현 공명렬 공선화 공승률 박노근 박성자 박성자 구영민 구세나 구수준 구승기 구현아 궁경혜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순성 권영주 권영진 권영진 권용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태국 권혁은 권혁은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숙 김경혜 김관희 김관희 김근식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기호 김남수 김대희 김도경 김도경 김도현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명학 김명학 김명학 김문수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현 김민 김민 김민리 김민아 김민영 김민호 김민희 김범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 김선옥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욱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숙 김영환 김영희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우경 김원성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정 김이종 김인숙 김재경 김재양 김재양 김재희 김정구 김진민 김정은 김정아 김정현 김중훈 김중호 김중환 김준 김준호 김준학 김지민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에 김지에 김지는 김지환 김진규 김진수 김진수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태승 김태인 김태훈 김푸른솔 김한민 김한준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형배 김형호 김형호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혜진 김호식 김호진 김홍희 김희재 김희정 김희찬 김희현 나선영 나해니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지현 남효진 남효진 노미경 노상경 노영조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류영욱 류승화 류승화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마이주 문건화 문경희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문창배 민아영 민혜수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영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누리 박누리 박다정 박다정 박명숙 박명숙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진 박세호 박승하 박시백 박시백 박시백 박애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민 박영환 박은정 박은정 박임당 박장근 박재국 박정숙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주원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영 박진우 박창숙 박철우 박태만 박하순 박현민 박현희 박홍석 배경원 배덕민 배문섭 배수자 배승천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준영 배진수 배치너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변하연 서기현 서기현 서남교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정록 서정용 서주형 석지은 설희란 성정현 성창기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주영 손준희 손준희 손희경 송기호 송무림 송병준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창국 송현정 송종호 신미숙 신복순 신봉준 신봉준 신석오 신수정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안선 신연실 신영근 신원미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심귀환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인섭 심정구 심정구 안경모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소진 안에스더 안인숙 안정은 안종녀 안준희 안향미 안희옥 양무현 양무현 양성주 양수경 양운근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양현준 어수진 엄재국 엄주철 여준민 연금순 오미영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정희 오지은 옥샘 우경호 우경호 유남숙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영순 유창재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훈 이경희 이광만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금희 이기순 이기훈 이동은 이동진 이라나 이라나 이라나 이미나 이미리엄 이미영 이미영 이미정 이미정 이범민 이비할 이상림 이석원 이선진 이선의 이선희 이성호 이수연 이수영 이수현 이순용 이슬기 이승민 이승범 이승현 이알찬 이알찬 이연욱 이연주 이영경 이영란 이원진 이유진 이윤욱 이윤정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재령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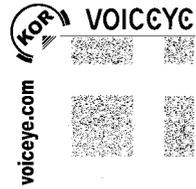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방식과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옥 이준범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영 이진주 이찬미 이철우 이태곤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형록 이호연 이호중 이희국 이효정 임광열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영 임은정 임춘학 임태종 임혜숙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현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아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관세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상자 전 옥 정규명 정금자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미란 정민구 정민구 정병순 정상옥 정상욱 정선옥 정승이 정수연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일 정용훈 정우영 정우중 정우준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재훈 정종권 정종훈 정지영 정진영 정진이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진 정혜림 정혜원 정희덕 조경애 조미숙 조미정 조미정 조사랑 조상은 조성남 조성진 조수안 조승하 조아라 조원일 조윤실 조윤정 조은미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재범 조항숙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조혜민 좌동엽 좌동엽 좌미경 주기종 주상연 주식희자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준희 지혜름 진영옥 진영인 차무영 차순정 채이배 채정주 천성호 천성호 천종민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은 최우영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재민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은 최정희 최진석 최찬일 최한별 최한별 최현진 최혜영 최호연 표은혜 표은혜 하경남 하금철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선 한혜선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 창 현영철 현정민 현장우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송대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철기 홍철기 황성운 황승미 황정의 황진미 황해진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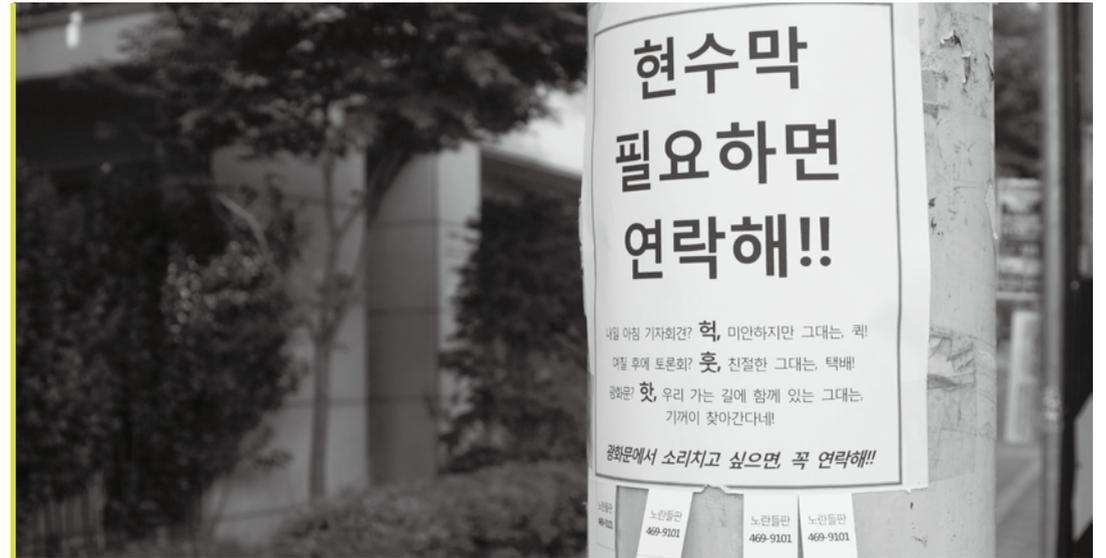
강수혜 고명선 구자숙 김미선 김용철 김정지현 김지연 김지윤 남완승 류동훈 류승아 박경선 박현규 서금석 손환목 신동길 신 디 안선영 안성희 오선실 윤종배 윤지형 이두혁 이수영 이한진 이현숙 이형욱(부개성누가의원) 정옥순 조광배 차명수 책으로여는세상 최상희 최혜리 허 건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노들로 들어온 선물>

2월 | 정태현 박카스 1BOX
별꽃 무적의 크레파스 세트

*후원물품 판매 안내

『노란들판의 꿈』(홍은전 지음, 봄날의책 펴냄, 12,000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매실청(900ml): 20,000원
노들20주년 사진집(20,000원)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퀴!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한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문의 02-469-9101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ncil.or.kr
이메일 nodl@hanmail.net 트위터 @nodlclil
전화 02)766-9103 /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ttp://www.420pan.or.kr/
이메일 centerpan@420pan.or.kr
전화 02-6082-6420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당신이 고향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나는 다시 이렇게 바꾸어 쓴다.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은 당신이 비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시선의 폭력: 편견사회에서 장애인권 바로보기』에서
시몬느 소스, 한울림스페셜, 2016

